

좌초위기 예상개혁, '비상체제' 돌입

총회장 조정삼 목사 불신임, 총무 정해송 목사 해임안 임원회에서 결의



조경삼 목사

전 도 총회 (류광수 다락방) 영입 문제로 예상개혁총회가 좌초위기를 맞고 있어 결국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예상개혁총회가 총회장과 총무 등 문제의 근원이 된 찬성 측과 결별을 선언하고 진리 수호를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위에 총회 모든 문제 처리 권한 위임 결의 총회장과 총무를 제외한 예상개혁 임원 전원과 노회장, 노회서기 및 총대들은 13일 오후 충남 신탄진 우리교회(장세일 목사)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총회장 불신임 및 총무 해임을 결의한 임원회의 결의를 추진한 후, 진리수호를 위한 비상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예상개혁은 1995년 제80회 총회에서

이단사이비 불건전한 단체로 규정하고 교류 금지를 결의한 전도총회와는 총회 합동은 물론 노회 영입도 절대 반대하며 이를 찬성하는 이들은 교단 헌법과 규칙에 따라 엄중 처리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총회 헌법과 규칙을 무시하고 독단으로 전도총회와 교류해 합동을 진행해 왔으며, 총회 분열 위기를 야기하고 총회의 명예와 위상을 훼손한 사유로 총회장 조정삼 목사를 불신임하고, 총회 결의에 반해 반총회적 활동을 한 총무 정해송 목사를 해임한 임원회 결의를 추진했다.

또한 박윤식 평강교회 원로목사에 대해서 '이단 면제' 보고서를 발간했을 뿐 아니라, 전도총회에 대해서도 '문제없음' 보고서를 올린 신학위원회 내용화 위원장이 총장으로 있는 개신대학원대학교에 대한 총회 인준 취소도 결의했다.

이날 연석회의는 이어 신용현 작전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총회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외 24명의 위원을 선임해, 향후 총회의 모든 문제를 처리토록 권한을 위임했다.



13일 대책회의를 소집, 총회장 불신임과 총무 해임을 결의했다.

이어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장 불신임 결의로 생긴 행정 공백을 위해 부총회장인 장세일 목사를 총회장 대행으로, 사무국장 김인규 목사를 총무서리로 선임하는 한편 대책위의 효율적 업무 처리를 위해 10인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결국 좌초위기에 빠진 예상개혁총회의 정상회복을 해서 오는 26일에 대천 성주

신수양관에서 전국 목사, 장로가 한자리에 모여 비상시기인 총회를 위해 기도회를 갖는다고 했다.

한편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총회장 조정삼 목사는 류광수 목사 측 다락방(전도총회)과의 영입은 사실이며 교단이 갈라져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

새에덴교회(소강석 목사)임직감사예배 드려

『참된 중직자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는 자리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요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자리요, 새에덴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기도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는 5월14일(토)오후4시 경 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소재 3층 프

라미스홀에서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소강석 목사 집례로 진행된 1부 예배에 노두진 목사(창대현교회)가 기도를 낭독한 뒤, 황남길 목사(복양제일교회)가 담전 3:1-13절을 봉독하고 정태일 교수가 지휘하는 호산나 찬양대의 "면류관 드리세"라는 찬양이 들려지고, 서철원 목사(전 총신대부총장)는 "주의 교회를 봉사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2부에서 소강석 목사는 임직식에서 시무장으로 3명, 사역장로 10명, 명예장로 4명, 인수집사 15명을 인수하고, 18명의 권사가 취임되었으며, 6명의 장로가 은퇴식을 가졌다.

이어 이우형 목사, 오인호 목사, 김경수 목사가 권면을 맡았으며, 김병구 장로, 오병열 목사, 이희찬 목사, 송영길 시장 등이 축사를 했다. 아울러 박주옥 목사(새에덴교회 음악목사)의 축하와

김찬호 장로(임직자 대표)가 답사를, 서광수 장로의 인사 및 광고를, 김용곤 목사(승리교회, 중경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임직 받은 장로, 권사, 인수집사 등을 축하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회 중직자는 권력이나 높임을 받는 자리도 아니며,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는 자리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리요, 신령주의 의뢰 의원으로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자리라고 말하고, 본교회에 기도와 같은 일꾼들로 쓰임받기를 기원"했다.



당회장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임직감사예배

2011 웨신총회 하계수련회 개최

주제 : "성령으로 뜨겁게"(행1:8)

1. 일시 : 2011년 6월 13일(월)~15일(수) 2박 3일
2. 장소 : 금강산 콘도미니엄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239번지 ☎ 033 - 680 - 7800)
3. 등록 및 접수 : 2011년 6월 13일(월) 오후 2시부터
4. 개최예배 : 13일(월) 오후 5시
5. 복장준비 : 편한 스타일, 가벼운 케주얼, 운동화 및 등산화, 선풍기, 모자,
6. 관광코스 : 통일전망대 및 DMZ박물관, 6.25 전쟁체험관, 화진포 별장, 해양박물관, 구선봉등
7. 총회장배 노회대항 족구대회, 개인당구대회,
8. 각노회별 총회 진상대회 : 노회소개 및 특기자랑 웃음서비스 준비요

※ 푸짐한 경품

참조 : 각 노회장과 서기는 5월 30일까지 인원파악 총회에 보고를 바랍니다.



웨신총회 하계수련회 기념촬영



총회장
 선상정 목사
 (송석교회)

총회수련회 총회장 인사의 말씀
 질어가는 6월의 푸르름 속에서 넓게 펼쳐진 바다를 마음껏 바라보며 숨가쁘던 사역의 현장에서 땀을 닦던 역자들이 더 큰 성장과 성취를 위하여 한 자리에 모여 서로 하나 됨을 감격하며 화합하는 귀한 일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감개무량함을 금할 길 없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봄인가 했더니 벌써 초여름에 접어들어 시원한 생수와 그늘을 찾게 되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2011년도 일선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동역자님들을 모시고 "성령으로 뜨겁게"(행1:8)라는 주제로 총회 하계 교역자 수련회를 개최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시느라 심신이 지쳐있고 영적으로 갇혀있으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노심초사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과가 없을 때, 얼마나 힘이 빠지고 위축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 있는 생명체입니다. 목회도 살아 있는 생물입니다. 생명체는 성장해야 하는 것이 생명 있음의 증거입니다.

성장은 변화를 전제하고 변화를 지속한 성장의 결과는 무한 열매입니다. 금번 하계 교역자 수련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으로 뜨겁게 재충전되어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사역의 현장을 변화시키고 지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금번 대회를 위하여 불신양면으로 협조해 주시고 많은 수고로움으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열강을 맡아주실 강사님들, 모든 순서를 맡아 진행해 주실 실무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회로 총회가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분들의 참여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6월 13일
 총회장성홍경목사

제60차 기하성 정총에서 교단통합 무산

여의도측 서대문측의 부채와 소송 문제로 부담 느껴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이하-기하성)는 지난 16일 여의도순복음교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에서 대의원 총 8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0차 정기총회가 열렸다. 하지만 교단통합을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데 있어 사실상 통합은 물 건너간 셈이다.

이날 총대원들이 “저쪽 교단(서대문 측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내부 사정을 철저히 실시한 뒤 통합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며 보류 의사를 밝혔다. 대신 “교단 통합은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부채와

소송 문제 등에서는 구체적인 실사를 거쳐 임시총회에서 다시 논의 한다”는 안건을 상정, 찬성 859표와 반대 6표로 통과시켰다.

이영훈 총회장은 “교단이 앞으로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을 배제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도시와 세상의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총회의 논의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은 충지를 모아 발전하는 총회, 성령운동을 이끄는 총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60차 정기총회에서 결의된 임



기하성총회 사진

원 구성은 회장 이영훈 목사, 부회장 이태근 목사, 강영선 목사,

고충진 목사, 허동진 장로, 총무 최길화 목사, 서기 정인환 목사

교회 건물 매매에 교인도 끼워 팔아

권리금까지 받는 교회 매매 실태 보도 교회 망신살



한겨레신문 갈무리

저지스티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도-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교인: **피종진** 목사 사장: **소진우** 목사 발행인: **정기남** 목사

전국 16개 지사 / 해외 9개국 지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마천2동 140-31

▶E-mail : jipress@hanmail.net

▶전화 : 070)8230-0032, 0034 ▶팩스 : 02)741-0031

▶대표 : 011)468-6574, 02)741-0031(팩스겸용)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서전송에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주와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0,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670-110405-00108 / 농협 455030-56-005509

부활교회

표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사60:1)



대표회장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5: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7:30

담임목사 : 이재원

교 회: 459-110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808-1
☎ 031-611-0191, 011-792-0191
e-mail: leepastor0191@hanmail.net

승리교회

표어: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리라!(히6:14)



부총재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2:00
수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후 9:00

담임목사 : 김효순

교 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595-5
☎ 010-3025-4625

동서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지영철 목사와
교우 일동

담임목사 : 지영철

(134-851)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59-3
☎ 02)474-1353 011-413-1229

세계로개혁신학 · 신대원

합동개역 총회



상임회장

이사장 : 홍 두선 목사

총장 : 신 동수 박사

학장 : Dr. David Kim

학장: 데이비드 김 목사
청주 수곡2동 청주우편집중교 버스정류장 앞
☎ 010-2802-3928 / 070-7581-0012
e-mail: yhk62@hanmail.net

재건 동대구 교회

표어: 좋은 만남 · 행복한 성도



공동회장

예배 시간	
주일오전	오전 11:00
주일오후	오후 1:40
수요일 밤	오후 7:30
금요일 밤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매일기도회	자유로이

담임목사: 박수영

교 회: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2(제1마을 1호선 신천역 하차, 신양1이동 옆)
☎ 053-752-8238, 011-9537-8291
e-mail: boas7@hanmail.net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동급만화-1급-3급자 환영)

원장 : 궁순중 목사

☎033)541-0687 / 010-7405-9191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녹리

등불교회 · 예수능력 치유 센터

세상을 밝여주는 교회 인생을 밝여주는 교회

2011년 표어: 교회의 가치를 높이는 해!



"예수능력 영성회복치유 성회"
매주 목요일 밤 7:30

주강사: 궁영민 목사
강사 세 · 주 · 부 · 협부흥사님들

예배 및 모임 안내			
장년 부		학생 · 청년 부	
주일오전	오전 11:00	어린이	오전 9:00
주일오후	오후 2:00	학생부	오전 11:00
		청년부	오전 11:00
수요일	밤 7:30	학생부장	오후 3:00(토)
금요일	밤 8:00	청년부장	밤 7:00(토)
매일	밤 9:00	기타모임	
목장	금요일 오전 11:00	불광사 양육: 주일 오후 4:00	
우리교회! 좋은교회!		새가족양육: 금요일 오후 2:00	
좋은교회! 등불교회!		전도모임: (토) 오후 12:30 차 나눔 (토) 오후 2:00 관계전도	

담임목사 : 궁영민

교 회: 402-011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1-3동 441-45

☎ 032-891-0651, 010-2080-0651

e-mail: kdp0920@nate.com

홈페이지: http://kmission.onmml.com

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재 이능규 목사 취임

대표총재 이능규 목사“말려 주신 귀한 직책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다짐과 침체된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살리는 데 역점을 두면서 지역조직을 활성화하여 민족복음화가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힘쓰겠다.

민족복음화중앙본부 정기총회를 갖고 총재, 총본부장 이, 취임 감사예배를 5월 6일 오전 11시 동서울 성현교회(라계동 목사)에서 개최됐다. 총본부장 라계동 목사 사회로 1부 예배가 진행되고 홍주표 목사(부총재)가 기도를, 김재일 목사(영해제자훈련원 부원장)가 성경봉독을, 총재 이민규 목사는“부름 받은 자”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총재 이민규 목사 사회로 정기총회가 개회되고 송미현 목사(부총재)가 기도를, 노두진 목사(부총재)가 그간의 경과와 정관개정에 대해 보고했다. 아울러 제3대 총재로 이능규 목사를 추대하고, 이정근 목사(부총협의회 증명회장)가 기도했다.

이날 총본부장 정병두 목사 사회로 이, 취임식에서 박창식 목사(총사업본부장)가 기도하



민복총 총재 이능규 목사 취임

고, 조영기 목사(상임본부장)가 성경봉독을, 박태희 목사가“바람직한 지도자 상”란 주제로 설교한 후 제2대 총재 이민규 목사가 이임사를 전했다.

이어 이귀형 목사(부총재)가 신임총재약력을 보고한 후 이민규 목사가 취임패를 증정했으며 총재 이능규 목사가 취임사 및 공로패, 취임패 등을 증정했다. 아울러 삼재선 목사(실무총재), 원봉현 목사, 이호윤 목사가 축사를 전하고 이중만 목사의 격려사에 이어 최남복 목사(상임부총재)축도로 마쳤다.

대표총재 이능규 목사는 취임사에서 귀한 직책을 맡겨주

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으며, 직분을 맡았으니 최선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하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다시 살리는데 역점을 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지역조직을 활성화하여 민족복음화가 전국적으로 이뤄지는데 앞장서겠다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민족복음화중앙본부는 민족복음화운동본부를 77년 고 신현균 목사가 부흥사연구원을 개설하여 후배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3년 전 이태희 목사가 2대 총재로 취임하면서 뜻을 달리한 연수원을 졸업한 젊은 부흥사들로 새롭게 조직된 단체이다.

민총만 목사 제3차 치유부흥사 연수원 수료식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위원장 민총만 목사)는 제3차 치유부흥사 연수원 수료식을 지난 16일 오후 7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말씀의 현장 세계치유선교센터에서 가져 30여 명의 목회자 전도사 등이 세계선교의 치유부흥사로 첫발을 내딛었다.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이며 원장 민총만 목사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제3차 치유부흥사 연수원 개원예배를 드렸다. 강사로 는 피종진, 최경순, 장사무엘, 조나단, 김평세, 조환호, 장철운, 민총만 목사 등이 내일의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는 부흥사의 자질과 부흥강사로서의 비전을 제시하는 열강을 토해 냈다.

원장 민총만 목사는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자리한 세계치유선교센터에서 매주(화,목)저녁 8시

부터 병고침, 은사회복, 물질회복, 대성회를 열고 있으며, 매일 오후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상담을 받고 있다. 매주 밤 8시 열리는 집회에 많은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 원장 민 목사의 집회 특징에 대해 깊은 영적인 함의로 첫발을 내딛었다. 해결의 지혜가 임하고,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자, 특히 화병, 우울증(조울증), 귀신들린 자, 암, 불치병이 왜 생겼는지, 신유은사로 문제를 정확히 밝혀주고,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고 있다. 또한 임파테이션 기도를 통한 질병치유 및 은사회복, 능력전이 형상이 일어나고 찬양 중에 성령의 기쁨 부음이 임하면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집회 특징을 말했다.

민 목사는 마태복음 28장20절, 마가복음16장15-18절의 말씀과 같이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귀신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며 세계치유선교센터에서 하는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누구든지 와보라, 그리고 체험을 통해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사명감당해 나갈 치유부흥사 연수원을 통해 많은 목회자들이 치유부흥사로 양성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했다. (민총만 목사는 세계선교교회 담임,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미국 세계성령사역자 협회 고문, CJTN방송 저지스티임즈 운영이사, 부사장) 문의: 032)329-9182, 010-9282-5873 홈페이지 : www.twhmc.kr

지저스타임즈 CJTN신문방송이사회열어

「언론은 불의와의 타협, 세상과의 타협, 인기와의 타협, 물질과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돼」

좋은 소식을 전하는 필객의 북이 되리라(시45:1)는 주제로 지저스타임즈 (신문) CJTN방송(www.jtntv.kr)은 2011년 제2차 정기이사회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세계치유선교교회(원장 민충만 목사)에서 열렸다.

이사회에 앞서 부이사장 장창윤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삼임이사 정기환 목사(웨스트민스터 학장)의 기도와 운영이사 강신숙 목사가 찬양을, 운영이사 김시라 목사는 시 낭송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으며, 부사장 민충만 목사(세계치유선교교회)는 “두 가지 사명”이

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표이사 정가남 목사의 인사 및 광고를, 삼임이사 이재갑 목사(웨신총회 부총회장)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부사장 민충만 목사는 두 가지의 사명에 대해 “신문과 CJTN방송은 문화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서 두 가지의 사명 감당이 있는데 첫째는 가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필객의 붓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는 가르쳐 지키는 것인데, 무엇보다도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곳을 문화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신문방송은 두 가지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문방송은 사람이 직접 발로 뚫 수 없는 곳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터넷방송은 지상파매체로서 전 세계를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세계 5대양 6대주, 오지에도 복음이 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인터넷방송이라고 했다. 또한 언론은 불의와의 타협도, 세상과의 타협도 인기와 물질과의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민 목사는 복

음을 외치는 사람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필박이 와도 타협이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론지로서의 필객의 붓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대표이사 정가남 목사가 진행을 맡고, 편집부장 박영민 목사의 기도로 회부에 들어가 신문 방송을 위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신문 방송 발전을 위하여 힘써나갈 것을 결의했다.

이어 CJTN방송 편성국 부장 박영민 목사, 보도국 차장 김영환 목사, 취재부 차장 이성우 목사, 필리핀 지사장 이경철 선교사 등을 사령했다.



말씀을 전하는 부사장 민충만 목사(세계치유선교센터 원장)



이사회 실무진들과 기념촬영

미국인들 82%가 애독하는 성경 ‘킹 제임스’ 400주년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도 킹제임스 성경이 보급돼야

611년 5월에 완성돼 올해로 400주년을 맞은 킹 제임스 성경이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라이프라이서치(대표 에드 스뎃처)가 지난 3월 18세 이상 미국 성인 1,00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62%가 킹 제임스 성경을 소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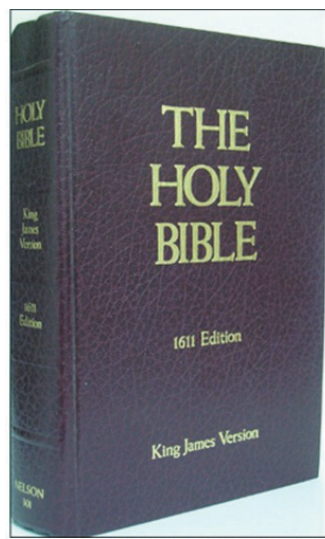
이들에 따르면, 연령별로는 35세 이하가 56%, 35~54세까지는 67%, 55세 이상은 76%가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72%, 남성 62%가

이 성경을 한 권 이상 집에 두고 있으며, 성인의 82%는 한 달에 한 번 이상 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 반면 킹 제임스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27%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에드 스뎃처 박사는 “킹 제임스 성경의 중요성은 오늘날 영어에 준 영향뿐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일반 대중에게 널리 보급했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교회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중에는 일부 킹제임스 원본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일부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있지만

한국성서공회와 보수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번역상의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교회가 좀 더 정통 원문 성경을 접할 수 있는 1611년에 완성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여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급되었으면 한다. 또한 우리 한국 교회에 보급되어 있는 성경은 새 번역에 이르기까지 구약과 신약에 무려 2만군 데가 넘는 오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킹 제임스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잉글랜드 왕 제임스 1세의 명령으로 1604년에 시작돼 1611년 5월에 완성됐다.



킹제임스 성경

로 1604년에 시작돼 1611년 5월에 완성됐다.

웨신 경중노회 정기노회 및 임직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경중노회(노회장 이기식 목사)는 경기도 오산시 결동 광성교회(장창수 목사)에서 지난 28일(목) 오전 11시 제17회 정기노회를 갖고 목사 임직식을 가졌다.

부노회장 원치홍 목사(하정교회)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회의록서기 고광산 목사(빌라델비아교회)가 기도를, 회계 김준장 목사(선한목자교회)는 마태복음 5장37~42절을 봉독한 후 노회장 이기식 목사(한샘교회)는 “십리를 동행해주는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서기 장승현 목사(영인교회)의 광고가 있었으며, 경중노회장 김승년 목사(예수소망교회)의 축도가 있었다.

2부 성찬식에서 경중노회장 장창수 목사(증경총회장/오산광성교회)집례로 김준환 목사(금오중앙교회)가 기도를, 이유영 장로(조두현 장로(광성교회)분병, 분산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 장창수 목사의 축도로 성찬식을 마쳤다.

3부 제17회 정기노회는 노회장 이기식 목사(한샘교회)가 개회사를 전하고 회부처리에서 회의록서기 김준환 목사(영인교회)목사의 개회기도가 있었다. 이어 회원점명과 개회를 선언, 흡석사찰위원을 선정하고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속회를 열어 목사 임직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 노회서기 장승현 목사(영인교회)의 인도로 임직예배가 시작되고 부노회장 원치홍 목사(하정교회)가 기도를, 회의록서기 고광산 목사(빌라델비아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0~24절을 봉독하고, 김성주님의



임직을 마치고

특송이 있던 후 경중노회장 장창수 목사(오산광성교회)는 “목회자가 가는 길”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날 순병숙 강도사가 목사 인수를 받았으며, 경중노회장 장임환 목사가 격려사를, 경중노회장 김승년, 김준상 목사 등이 축사했으며, 신임 순병숙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순병숙 목사는 부족한 저를 목사로 임직을 받게 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사랑과 은사로 인도하고

는물의 기도와 물질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가족들과 증경총회장, 경중노회장, 노회장님 그 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인사했다. 이어 다시 속회를 열어 모든 절차와 신 안전 토의를 거쳐 노회장 이기식 목사 인도로 폐회예배에서 김태현 목사(열방교회)가 기도를, 담후 2:15~22절을 인용 “하나님이 귀히 쓰는 노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고, 폐회선언과 축도로 제17회 정기노회를 마쳤다.



성노회를 마치고 기념.

피종전 목사 5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전 목사

010-5255-7777
jongjin777@gmail.com

남서울중앙교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
T: 02-3411-9191
F: 02-3401-7770
F: 02-3411-9111

1(주) 오전 미국(U.S.A) 살롱지역 복음화대성회(대회장 김복 목사)
주최: 미국 살롱지역 교회협의회
장소: 살롱 열린교회(저영창 목사) ☎(704)849-2661
2(월)~ 4(수) 미국(U.S.A) Henderson대학교(총장 Dr. Belk, 목회대학원장 피종전 목사)
미국(U.S.A) 필라델피아 필라노회 연합성회(대회장 Paul Kim 목사)
미국(U.S.A) 프린스턴신학대학교(N.J. USA)
주최: Nyskc World Mission(총재 피종전 목사, 대표회장 최고선 목사)
12(목)~15(주) 브라질(Brazil) 상파울로 서울교회(하경남 목사) ☎ 55-11-6398-9799
평화운동선(원장 피종전 목사) 한영신대 실천목회연구원 ☎(041)852-2211
아산 동천교회(최옥석 목사) ☎ 010-6694-2008
총회연합신학교(학장 박종두 목사) 광주분교 ☎ 010-9204-7706
인천 송도성령교회(조강원 목사) ☎(032)834-8291
의정부중앙교회(정인근 목사) ☎ 070-7583-7600
인천 행복한국교회(이상만 목사) ☎(032)446-7004
청주금식수양관(원장 백호선 목사) ☎(043)269-5211
음성 금강순복음예배교회(정현주 목사) ☎(070)4155-0017
서울 삼일동 한미음교회(신명환 목사) ☎ 018-295-5988
서울 대학로순복음교회(안준배 목사) ☎ 011-323-1992
일본(Japan) 오사카, Henderson대학교 일본 Campus
미국 Henderson대학교 목회대학원(총장 Dr. Belk, 원장 피종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경중노회 제17회 정기노회 및 임직식



노회장 이기식 목사



경중노회 중경과 외장 및 임원, 임직자(좌) 안수위원들과 임직자가 함께 기념촬영(우)



서기 장승현 목사

성노회와 임직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노회장 이기식 목사 외 노회원 일동

노회주소 : 충남 당진군 송악면 봉교리55-6

노회장 이기식 목사: 010-3240-4713 서기 장승현 목사: 010-9027-9712

대한예수교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운영이사
웨신총회부총회장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1 목회 지침
아버지께!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충성 - 감절의 선교

장로: 박광순, 김해자
강도사: 김성임
전도사: 오정순, 임사광, 최원희, 박에스터
협동전도사: 김신애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5동 169-198

☎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관)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대한예수교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부사장)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야회: 오후 9시

월·화 영성사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구순연 집사 초청 제주부협 간증, 성회 성료



세계 주영
광부흥사협
의회(제주부
협)는 지난
5월 2일 ~
5일까지 3박
4일간 인천
서구 가좌동

에 소재 새창조기도원(원장 김주
향 목사)에서 “심령은혜회복 성
회”를 가졌다.

이번 성회는 부총재 김효순 목
사를 주강사로 초청하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
어났다. 특별 강사로 “천국과 지
옥 간증 및 국악 찬양 사역자”로
널리 알려진 구순연 집사의 간증
및 국악 찬양 시간이 이어졌다.

구순연 집사는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지난 13년간 국내 유명
기독교 방송은 물론, 전도 간증
집회, 총동원 전도주일, 새생명
전도 축제, 노인대학, 경로잔치,
주민 초청 잔치 등 전국을 순회하
며 약5천여 교회에 부흥의 불을
지켰다.



▲제주부협 간사들과 함께 기념촬영

그는 또한 대한민국 시민문화
상(국악찬양 전문인 상)을 수상 하
였고, 찬양음반 및 국악찬양음반
을 내었으며, 그는 국악 찬양이
우리네 정서에 맞아 듣는 이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복
음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큰 도움
을 주고 있다. 자녀들 또한 “Last”
라는 CCM 찬양사역자이기도 하

다. 평신도로서 가정이 전문 목회
사역자 못지않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아름답기만 하다.
아울러 그가 체험한 사후세계
를 책으로 내(책나무 간) 많은 이
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간증을 통해서 지금
이야말로 주의 재림이 임박해있
는 때이고 그분이 이 땅에 ‘심판

의 주님’으로 오시려고 천국의 문
고리를 잡고 계시기에 더 이상 지
체할 수가 없어 자신의 간증과 저
서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구순연 집사 집회 문의 011-
338-7698

CJTN 편성국 부장 박영민

예장백석 인천 노회장 이·취임감사에배

“한 해 동안 섬김의 마음으로 성심성의껏 주어진 일
감당하겠다”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부탁

대한예수교장로회(백석)총회
인천노회는 지난 5월 9일 인천 남
구 학익동 소재 은혜교회(박정식
목사 시무)에서 직전노회장 한상
운 목사와 신임노회장 박정식 목
사의 이·취임식 감사예배가 120
여 노회신하 회원들과 100여명의
하객들과 함께 드려졌다.

서기 이정갑 목사 사회로 예배
가 시작되어 부노회장 최대욱 목
사의 대표기도, 직전노회장 한상
운 목사가 설교를, 증경총회장 장
원기 목사는 취임패 및 공로패를
수여했으며, 신임노회장 박정식
목사의 취임사와 증경노회장 김
자현 목사의 권면이 있었다. 또한
최종훈 목사가 축사를, 초대 증경
노회장 강영희 목사 축도로 마쳤
다. 이날 화가에애한 가운데 이·
취임 자가 서로 격려와 축하를
전하며 포옹을 하자 박수갈채를
받는 감격을 안겼다.

이날 직전노회장 한상운 목사
는 “영적지도력의 가치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인간은 지도권을

열망하는 존재이고, 명예로운 야
망이다. 라면서 바울과 디모데를
예로 들어 명예로운 야망을 가져
야하며, 영적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므로 세움을 입은 자는 섬
기는 자의 자세와 종의 자세를
잊지 말 것을 직시했다.

이어 노회장 박정식 목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왔으며, 앞으로도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한 교회를 섬기기도 어
려운 내가 인천노회를 섬기기에
는 여러모로 부족하다. 어깨가 무
겁다 부담도 많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섬김의 마음으로 성심성의
껏 주어진 일 감당하겠다”는 다
짐과 함께 자신의 취임 소감을
밝히고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
를 부탁했다.

박정식 목사는 2006년 ‘대한민
국 미스코리아 선’과 ‘미스코리아
미스 인천 진’에 오른 박사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박 목사는
1986년에 인천 학익동 소재에 ‘은
혜의 교회’를 개척하고 ‘평신도를



▲이·취임선서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다음 세
대를 준비하는 교회”, “궂고임이
갹신되는 교회”라는 3대 표어를
비전잡아 목회에 전념하고 있다.
1987년 서울 ‘사랑의 교회’의 제
자훈련을 목회에 도입, 출석교인
장년 4,500여명에 이르는 성장을
일으킨 목회자로, 노회뿐 아니라
국내목회자들 사이에서는 부러움
과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인천에서 CJTN 편집부장 박영민 기자

이만의 환경부 장관, 야간 십자가 빛 규제

국회가 빛공해방지법 제정안 심사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다” 또한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법정정 반대운동에 나서겠다”며 크게 반발

최근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한 토론회에서 빛 공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밝히는데 교회 십
자가만 가득 보이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지난 28일 전해졌다. 그는 서울
목동 지구촌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목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한다. 하지만 그는 교회 십자가
가 빛 공해로 인식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영
아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빛공해방지법 제정안을 심
사 중에 있다면서 환경부는 법
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활발
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과도한 조명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조명환
경관리구역에 등급별로 설정한
뒤 이에 맞는 빛 방사 허용 기
준을 설정한다. 조명이 필요
없는 산림지역은 야간 점등이
강하게 규제되고, 상업지구 등
은 규제 수위를 낮추는 식이
다.

서울시는 ‘빛공해방지 및 도
시조명 관리조례’를 시행하는
데 교회 십자가는 기념물로 분
류돼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
다. 제정 법률안은 예외 조항
을 두지 않아 교회도 조명환경
관리구역 등급에 따른 규제 대
상에 포함된다. 산속 기도원,
주막가 교회는 십자가의 밝기
를 조절하거나 아득집 창으로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차광시
설을 설치해야 한다.
보수 교단은 ‘십자가를 끄는
것은 교회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
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운
태 총무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
는 십자가를 단순히 불빛으로
만 봐서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에 불과하
다”며 “한국교회의 존재감을 무
력화하는 발상으로 절대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신형 전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도 “에너지 절약 차원
이려면 교회가 자율적으로 전
기를 아끼는 운동을 펼치면 될
것”이라면서 ‘십자가 불빛을 제



한하겠다는 것은 기독교를 희
미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법제정 반대운동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반면 기독교환경운
동연대(기환경)는 “교회가 십자
에 십자가를 소등하는 자발적
에너지 절약 운동에 나서야 한
다”고 강조했다. 기환경은 십
자가에 쓰이는 네온사인을 전
력 소비량이 적은 발광다이오
드(LED)로 바꾸자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선정수 윤종식 기자
jsun@kmib.co.kr

참사랑소망교회 부여성전 설립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참사랑소망
교회(손영란 목사)는 4월30일 오
전 11시 충남 부여군 남면 마정7
리 소재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
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기도와
터이니라’(딤후3:15)는 말씀을 주
제로 제4성전을 설립하여 감사예
배를 드렸다.

손영란 담임목사는 1987년 11월
11일 경기도 성남시 태평2동에
참사랑교회를 설립했다. 그 후
1990년 12월27일 성남시 은행동에
참사랑소망교회를, 1996년 10월3
일 경기도 안성시 170평 건물을
매입 제3성전을, 2011년 4월 30일
충남 부여군 남면 마정리에 300
평 토지건물을 매입 네 번째인
제4성전을 설립하게 되었으며 감
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손영란 목사는 부여성역
에 제4성전이 세워진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
을 돌려드린다고 말하고 십자가
사랑에 빛 진자 되어 주님을 사
랑하는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설립
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하고



▲참사랑교회 부여성전 설립예배 축도하는 손대영 목사

계속해서 관심과 기도로 농촌교
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했
다.

이날 손영란 목사(동북노회장)
의 인도로 설립예배가 진행되어
주금복 목사(부노회장)가 기도,
제직일동의 특송이 있은 후 손대
영 목사(보수교단총회장)는 “제자
삼으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
했다. 이어 손영란 집사, 서봉순
권사가 특송을 했으며, 이길선 장
로가 헌금기도를 했다.

또한 건축위원장 이길선 장로

가 교회현황을 보고하고 노회장
손영란 목사가 교회 설립을 공포
했다. 이어 류태호 목사(성경교회
원로), 김미식 목사(국제디지털신
학원장)가 축사를, 이호영 목사
(수경교구협의회총회장)가 권
면을, 정기남 목사(CJTN방송 주
간 저지스티임즈 대표이사)가 격
려사를 전했으며, 최승우 집사가
색소폰 연주를, 함명화 전도사(참
사랑교회)의 몸전양이 있은 후 김
두현 장로가 인사 및 광고를, 설
교자 손대영 목사 축도로 마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공덕교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무 장로 : 송두현 조길수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밤 오후 8시 금요일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평창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페이지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
의 교회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
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담임 모상련 목사

주일예배 시간 장소

요일	예배	시 간	장 소
주 일	보통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최대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대 예배소
주 일	수요예배	오전 7시	3.4층 대 예배소
주 일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소
주 일	평년부예배	오전 5시	5층 중앙강독
주 일	대학부예배	오전 5시	5층 무단노출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9시 30분	2층 새롭다
		2회 오전 11시 30분	2층 새롭다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2회 오전 11시 30분	5층 무단노출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소
	중등부	오전 9시	2층 중앙강독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중앙강독
	영양예배	오전 1시 30분	5층 무단노출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 (북항주백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산반석교회

생명전화 : 031)378-9349



담임 김동주 목사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오전 06:00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알파과정	오후(주일)
디스아일스	오후 7:30(화)
주중새벽예배	오전 05:30
금요기도회	저녁 8:30
주일학교	오전 9:20
WIVA영재교육	오후 1:00(토)
중·고등부	오후9:30(주일)
청년부	오후 7:30(토)

오산시 원동 845번지 양우프리자 8층
Tel : 031)378-9349 신앙상담 : 010-2378-9349
http://www.반석교회.kr

대한예수교장로회 은누리찬양교회

All Nations Praise Church



담임목사 정대성 목사 선교사

초대합니다. 찬양과 말씀 속복성회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 아무도 위로가 되지 않아 낙심할 때 피로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찬양과
말씀이 있는 축복성회로 오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배·시·간

주일새벽예배	주일오전 11:00
주일학교	주일오전 9:00
주일저녁예배	주일오후 7:30
청년부예배	주일오후 2:00
심야기도회	매일오후 9:00
학생부예배	주일오후 3:00
축복성회	매주 금·토 저녁 9:00~
주요예배	수요일오후 8:00
매주주일	저녁 7: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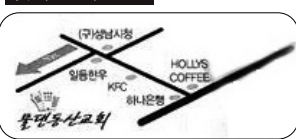
광주 광역시 광산구 도산동 773-3호
☎010-4932-7277 070-7443-7277

대한예수교장로회 물댄동산교회

예/배/시/간/찬/내

주 일 낮 예 배 오전 11시 00분
주 일 오후 예 배 오후 2시 00분
수 요 예 배 오후 7시 30분
목요찬양치유예배 오후 8시 00분
금 요 예 배 오후 8시 00분
학 생 예 배 (토) 오후 5시 00분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시 00분
8시기도회(매일) 오후 8시 00분

찾아 오시는 길



담임 송미순 목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평2동 3422
☎031)765-9826, HP010-5461-0300

대한예수교장로회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심재호 목사

서울시 노원구 상계 5동 169-210 5층
☎02)951-4331 935-4611 HP 010-6350-4611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천성교회



담임 권세웅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구 분	시 간
새벽기도회	새벽 5:0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경기도 평택시 평성읍 신궁리 245-4
☎031)953-5830 HP 010-8585-913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두란노교회



담임 kwak an-kun 목사
(본지 운영이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 번지
전화 : 041- 854-3676 H.P 018-320-1507

박영남 교수 부천소사구청에서 시낭송회 열어

2011, 새 봄을 맞아 봄철 열린 시낭송회가 지난 18일 오전 11시 30분 부천시 소사구청 현관 앞에서 열렸으며, 5월 중순까지 약 4주 동안 시화전을 가졌다.

한국문학아카데미(소사구청 문화교실 문학동아리),GMC, 포엠시낭송회 주최와 건국대학교 문예창작 아카데미 후원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시낭송 작품이 소사구청 문화교실 등에 전시되었다.

이날 박영남 교수는 인사를 통해 시화전의 양력과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2001년 3월부터 소사구청 문예창작관에서 시작하여 2011년 현재 만 10년째 20여회의 시화전을 가졌으며, 각자가 배운 것을 가지고 봄과 가을에 한 번씩 2회 시화전을 가졌다고 한다. 본회를 통해 약 200명의 회원이 문단에 등록했다고 말하고, 이번 시화전도 약 1개월간 개최되어 각자가 출품한 작품을 시낭송을 통해 발표했다.

박영남 교수는 부천은 경제도시, 문화도시로서 성경말씀대로 꽃과 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꽃은 어린이의 양식이요, 이는 의식주 경제를 가리켰다. 또

한 꽃은 정신의 양식이며, 즉 영혼의 양식, 정신의 양식을 말하는데 이는 문화와 예술을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천은 경제와 문화를 지향하고 있는 도시요, 여긴 꽃과 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곳, 멋있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부천이요, 이러한 고장에서 우리가 시낭송회를 갖게 된 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한다면 직접 집필한 시를 다음과 같이 낭송했다.

"새 봄 에"박영남 / 구시평 구시평 행한 들판 질러가던 우울한 기억의 바람 아작도, 목숨이 붙어 있을거나 실패한 들 지키고 있는 어께 꺾인 허수아비 백년 묵은 인골 같은 검은 뼈의 앞개를 뽀나 무랑 토담 밑에 묻힌 머위 뿌리랑 추운 겨울 안부를 묻는 탕자나무 굴뚝새 매마른 숲 속에도 구정권이 불라나고 새 정부가 들어선 듯 새로운 인사가 발표된 듯 술렁이고 있다. 신기리 장수처럼 구멍난 꿈의 밑창부터 갈아 끼우고 녹스하는 비눗물로 닦아내고 묻힌 것이 돌아나고 잃은 것 되찾고 읊지가 양지로 개벽해야 한다고 웅성



▲건국대 박영남 교수(문학 칼럼니스트)

거리고 있다. 우울한 겨울바람이 지나고 서서히 색깔이 바뀌고 있다. 는 시낭송이 발표되었다.

이어 (1)작가 신락균의 "청산도, 내 꿈의 끝자락"(2) 이수운의 "매화"(3) 박용섭 의 "봄이 오는 소리"(4) 김영주의 "우이동에서 시를 읽다"(5) 유중희의 "봄, 풍경"(6) 김민지의 "나무의 울음"(7) 이은경의 "바람이 불어 온다"(8) 유주연의 "나를 찾아 떠나는 순례의 길"(9) 유재우의 "봄, 갈라시네"(10) 윤정아의 "어머니, 낮은 땅 같은"(11) 조병욱 목사의 "버려야 할 것, 찾아야 할 것"(12) 이연희의 "땅에서, 하

늘에서"(13) 최영옥의 "봄의 향기"(14) 최영희의 "아는 것과 사는 것"(15) 김계희의 "꽃과 풀이 흐르는 나라"? 백순화의 "아들아" (17)김경옥의 "재벌을 깨우라" (18)정관철의 "나의 기도" (19)김영순의 "나는, 당신의 알리바이" (20)이순희의 "당신 함께 계시기에"(21)이란희의 "새벽 별 하나" (22) 오화순의 "나의 사람아" (23) 장명숙의 "당신이 계시기에" (24) 박복순의 "나의 엄마" (25) 오영선

의 "25시" 등의 시낭송이 소개 되고 전시되었다. 이날 많은 지인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이 대통령 내외, 어린이 350여명 청와대 초청

제89회 어린이날을 맞아 이명박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는, 5월 5일 오전 어린이 3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하고 코끼리열차 탑승 체험과 게임을 같이 하는 등 어린이들을 격려했다.

"5월 5일, 청와대로 소풍가자!"란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어린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하면서 어린이들이 더 큰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주인공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데 필요한 큰 꿈을 가지도록 격려했다.

아울러 김윤옥 여사도 늘 긍정적인 생각과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어린이로 자라줄 것을 당부했다.

5일 행사는 어린이날에 아이들이 대통령과 함께 가장 가고 싶은 곳이 놀이공원과 청와대라는 점을 감안하여 청와대 녹지원에서 아이들이 놀이공원 분위기를 즐기면서 다양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볼거리를 마련했다.

대통령 내외분은 코끼리 열차를 아이들과 함께 탑승한 후, 각자가 희망하는 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 꿈을 꼭 이룰 수 있다고 아이들을 격려했다.

게다가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과 개그맨 김신영이 공동 진행한 이날 행사에서 어린이들은 국방부 군악대와 의장대 연주, 도자기 만들기 체험, 명랑운동회 등 다양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 하였으며, 특별히 준비된 어린이용 뷔페로 점심식사를 했다.

이날 초청행사에는 아동양육시설·지역아동센터 어린이, 다문화·한부모 가정 어린이, 장애아동 등을 비롯하여 격오지 근무 중인 군인 자녀, 순직 경찰관 자녀, 서북5도 등 도서벽지어린이 등 약 3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했다.

이중에는, 몽골에서 태어나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한국에 온 후



▲어린이날 청와대에서 어린이들과 함께한 대통령 내외

현재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 어린이(11세)와, 3살 때 입양 후 파양되었다가 재워막 가정에서 파양의 상처를 극복하고 있는 어린이(13세)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린이들이 초청되었다.

이 밖에도 폭력사건 조사와 교통지도 과정 등에서 순직한 경찰관 자녀들과 한 부모 보호시설에

입소중인 아동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못마땅하게 생활하는 어린이들이 함께 했다.

특히, 어린이들은 경찰 에스코트를 받으며 정문으로 청와대에 입장하는 등 국민대우를 받았고, 행사 말미에는 동행한 가족 및 보호자와 함께 청와대 경내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부부듀엣 세라임, 크리스찬 라이브카페 '가스펠하우스' 개원

부부듀엣 세라임, 그들 부부는 인천 남구 문화동 소재에 찬양과 겸이 있는 곳, 크리스찬 라이브 카페 "가스펠하우스"를 개원하여 운영하고 있다.

찬양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사역에 꿈이 있는 분들, 또는 성도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이들은 언제든지 이곳을 찾아 여러 종류의 맛 좋은 다양한 차와 함께 라이브 찬양을 나눌 수 있는 가스펠하우스이다.

이를 운영하는 세라임 부부는 가스펠 하우스를 통해 "국내 찬양 사역자를 초청하고 함께 찬양을 드리며 지친 영혼에 회복과 평안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장소이다.

이들 세라임 부부는 CBS 기독교 TV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한바 있으며, 찬양사역은 물론 은혜로운 찬양의 작곡가이기도 하다. 1집에 이어 2010년에는 2집 음반을 내었으며, 1집과는 달리 2집에서는 어쿠스틱 기타만으로 노래를 불렀으

며, 12곡 중 5곡이 창작곡이다.

세라임이란 뜻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의 '세'와 에브라임의 '라임'을 합쳐 만든 것으로, 과거의 고통을 잊게 하고 에브라임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한 축복의 열매를 맺는다는 창41:51-52에서 영감을 얻어 지어진 이름이다. 세라임이라는 말이 암시하듯 이혼이라는 이들 부부의 과거의 아픔과 절망을 잊고, 사역을 잘 감당해 행복한 부부생활을 영위하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간증을 통해 자신들과 같은 아픔을 가진 이들을 치유하고 있다. 가스펠하우스는 오전 11시에 개점하여 밤10:30에 문을 닫는다.

기자는 인근에 있는 동료 목사들과 가끔 이곳을 찾는다. 그때마다 반갑게 맞아 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기도 한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차를 나누며 대화를 하는 중에도 찬양을 부르고 싶으면 즉석 무대에 올라 라이브 찬양을 할 수 있고, 세라임 부부의 은혜로운 찬



▲부부듀엣 세라임(가스펠하우스 운영)

양을 마음껏 들기도 한다.

그런가하면 모임을 위해 사전에 미리 예약을 하면 30명 정도는 가능하다. 또한 따로 모임을 가지며, 식사도 할 수 있는 15명 정도 인원이 식사도 할 수 있는 룸을 준비해 놓았다. 인원이 많을 시는 식당이 아래층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어 편리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다.

찬양 사역과 장소문의는 010-2089-9125, 010-7937-2060이다.

인도는 전통적으로 카스트라고 하는 신분제도에 의해 독특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인도는 크게 네 개의 카스트가 있는데, 브라만 계급으로 이들은 힌두 승려 그룹이며 크샤트리아 계급으로 이들은 귀족과 무사들 그룹이며 바이사 계급으로 이들은 평민들로 구성되며 수드라 계급은 가장 낮은 천민과 노예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직업에 따라 약 2,378개의 카스트가 있으며 결혼과 같은 대사는 같은 신분이 아니면 성사되지 않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인도 사회 속에 깊게 뿌리박고 있다. 지금도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 세계 소프트웨어 2위국이고 인공위성을 띄우고 핵을 보유하고 있지만 흔히 인도를 일컬어 '인도의 머리는 외세기에 있고 꼬리는 19세기에 있다.'고 한다. 인도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의 국가들도 형태와 강도의 차이는 다소 다르지만 역시 여러 계층의 복잡한 신분사회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그 계층 간의 갈등, 충돌 그리고 신분상승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들이 있는 것 경제자본논리에 따라서 다시 세

평신도



이준철 목사
칼럼니스트

이다.

봉건제도의 국가형태가 아니라도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라는 가치기준에 따라서 다양한 계층과 특성의 새로운 계급사회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계급구조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제사장이라는 신임을 가지고 있는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제도화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 성경적 인본주의는 개혁되지 않고 천주교 조직의 폐습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개혁교회 안에서 도 목사를 거부장적이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절대관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그 성직자 그룹도 이미 천주교의 복잡하고 엄격한 계급조직을 모방하여 굳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 그룹은 피 지배대상에 대한 적절한 카스트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즉, "평신도"라는 카스트가 있어야 되고 이 안에서 또 경제자본논리에 따라서 다시 세

분화되어 전체적으로 거대하고 특별한 종교계급사회가 형성되는 것이다.

"평신도"라는 단어는 성경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용어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계급 등은 자연발생적인 것이지도 모른다. 또 그것이 어느 정도 사회나 조직이 기능적으로 잘 유지 발전시키는 적절한 장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제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소위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마치 계급사회 같은 신분의 구별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기득권층과 소외계층의 갈등이 조장된다면 이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 공동체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것을 권위주의(Hierachism) 즉 계급주의라고 한다. 한국 기독교 사회 안에는 이러한 인본주의의 부작용 현상으로 목사직과 교회직의 성직이 대량생산되고 있다. 현대판 시모니(simony-성직매매)의 난장판 사대인 것이다. 목사직과 교회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면죄부와 같은 천국 티켓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노비문서인 것이다. 그래서 목사는 '종'인 것이다. 평신도(?여 무지몽매에서 깨어나라!

찬양치유사 2급과정 무료교육



고문
피종진 목사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서울시 구로5동 사무소 옆 / 구로보건소 옆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02) 862-3181 / 010-5678-9950



총재
장창윤 목사

한국기독교찬양치유협의회
(www.0675.us)

서울본부
(0675us.onmam.com)



정민철 목사



이순옥 목사



정기남 목사



정태중 목사



오은영 목사



김재규 선교사



오선연 선교사



김은혜 선교사



송정숙 선교사



김동희 선교사



정원도 선교사



최인순 선교사



김형숙 선교사



이영만 선교사



김혜영 선교사



제갈경은 선교사



김미복 선교사



김영중 목사

서울찬양신학연구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웨신총회 인준신학)

● 설교와 찬양 실기전문교육

● 장학금 60%

● 매주 월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 홈페이지 : 3181.0nmam.com

● 전화 : 011-710-9347

010-5678-9950

발람으로 인한 교훈(2)

욕심에 눈이 어두워 그들을 그 밭에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께 여쭙보니 여호와께 한 번 말씀하였으니 두 번 말씀이 없으시고 민22:20에 사단이 개입하여 하나님을 빙자하여 물질(부)과 명예에 눈이 어두워 발람에게 가고 싶어 하는 발람에게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니 말만 준행 할지니라 합니다.

민22:21 결국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단이 하나님을 빙자한 그 말을 듣고 발람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자기 나귀를 타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갑니다. 민22:22 이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어 칼로 발람을 쳐 죽이려 하십니다.

욕의 욕심에 눈이 어두운 발람은 칼을 빼어 들고 쳐 죽이려고 서 있는 여호와와 사자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가 타고 가는 나귀는 칼을 빼든 여호와와 사자를 보았고 발(포도원)으로 피하매 발람이 자기 나귀에게 채찍질을 합니다. 여호와와 사자는 포도원사이 좁은 길에 섰고 나귀는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합니다. 즉 자기 주인 발람이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하게 하여 죽임을 면하게 하려고 하나 발람은 다시 채찍질하고 여호와와 사자는 더 나아가서 피할 때 없는 곳에 서고 나귀가 여호와와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이번에 발람이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칩니다. (지팡이에 대하여는 다음 기회에 은혜 받기로 합니다)

민22:28-30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미디안 사람 발람에게 사람 말 즉 미디안 말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오직 물질과 명예에 욕심이 눈이 멀은 발람은 나귀가 지금 사람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지금 사람 말을 하는 나귀와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민22:31-33에 네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즉 내가 네 명을 어기고 네 욕심으로 인하여 나를 빙자한 사단의 말을 듣고 발람에게 가는 것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죽이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세 번

피하므로 내가 아직 살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발람이 하는 행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민22:34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드리되 내가 범죄 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자 이걸 보십시오 지금 자기가 심복의 아들 발람에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자기 욕심으로 사단을 쫓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패역하므로 여호와와 사자가 칼로 쳐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고 나귀가 이를 보고 세 번 피하지 아니 하였다면 벌써 저주 가운데 죽어 있을 것인데 아직도 심복의 아들 발람이 약속한 부와 명예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여 저주의 길 즉 불의의 삶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드리되 내가 범죄 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돌아가겠나이다.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야 하는데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진노하셔서 죽이려고 하신데도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아직도 심복의 아들 발람이 약속한 부와 명예를 놓치지 않아서 욕심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22:35 여호와와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니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람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더러운 욕심의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심복의 아들 발람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자기로 약속한 부와 명예의 욕심에 매여 달리는 브올의 아들 발람을 모압왕 심복의 아들 발람이 하나님의 친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 못 건드리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고 죽이시려고 발람을 가지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발람이 보여주는 모든 행위가 참으로 이 말세에 예수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주님의 종이되어 나아가는 우리가 돌아켜 보아야 할 것이 많음



현병우 목사
임마누엘 영성원 원장
CJTN방송 부사장

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구할 때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약속과 그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대로 구하여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자기의 욕심이 요구하는 즉 사단 마귀가 주는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빙자한 다른 영 즉 사단 마귀가 대신 응답을 합니다.

1.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달라는 심복의 아들 발람의 부름을 받고 술사 브올의 아들 발람이 여호와께 불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가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민22:7-12)

2. 욕심의 탐욕인 물질과 명예를 놓고 여호와께 구할 때 여호와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빙자하여 미혹으로 대답합니다 (민22:15-20)

3. 욕심의 탐욕에 빠져서 사단의 미혹을 받고 심복의 아들 발람에게 갈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발람을 죽이려고 여호와와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민22:21-24) 4. 욕심의 탐욕에 빠져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 사람 말 즉 미디안 사람 발람에게 미디안 말로 하게 하나 발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민22:25-33) 5. 욕심의 탐욕에 빠진 발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깨달았다 고백하고도 욕심의 탐욕을 버리지 못하여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고 죽이시려고 발람을 보내십니다. (민22:34-35) 다윗도 또한 욕의 욕심과 명예욕 즉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빙자한 사단에게 미혹당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습니다.

부활신학과 더 좋은 부활2

2. 부활의 첫 열매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에 관한 논쟁은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해 보이면 간단히 해결된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역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를 넘어서 역사 이상의 것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탐구로 열려있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성과 아울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것만으로 전부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초월해서 더 중요한 차원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부활로 인한 새 세계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한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1) 네 가지로 부활 입증 : 첫

는 환상상태같이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여기며 예수부활을 주장한다는 것 즉 주관적 환상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주관적인 환상이 아닙니다. 이는 제자들이 정신이 멀쩡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제자들의 객관적인 환시, 즉 예수의 영만이 살아났음을 하나님이 보여준 환시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영이 육신과 합해져서 다시 일으켜지신, 즉 영과 몸으로서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주관적인 환상이나 객관적인 환시가 아니라 직접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만져보고 확인한바 된 분명한 사실적 사건입니다. 또 살과 뼈가 있고 음식을 잡수시기도 하신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셋째, 부활 현현을 설명하는 냉정성입니다. 지금까지 부활자체를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본지 상임이사

무엇이었을까? 이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어서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주가 되심을 목격하였고 확신하게 되었기에 이 절대적인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사실들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부활의 역사적 증거를 살펴보았습니다. 역사 안에서 일어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째, 예수님이 무덤에 잠시된 이후 36시간 후에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이 무덤 속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고 빈 무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부활을 거부하고 논쟁하는 자들은 도난설(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 훔쳐갔다), 또는 기절설(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을 주장하며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난설이나 기절설을 주장하는 자들의 주장은 효과가 없어지고 만 것이 됩니다.

둘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친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증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반론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주관적 환상, 즉 제자들의 소망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다음에 제자들이 그분을 다시 보기를 사모하여 환상으로 보여진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또

서술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전혀 보이지 않았으며 부활에 관한 자료를 손질하거나 꾸며 내려한 어떠한 공로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사건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간단하게 절제되어 부활사실 자체만을 그대로 서술되고 있습니다.

넷째, 제자들의 변화와 신약교회의 설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겁과 두려움이 많은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도 제자들이 문을 닫고 모여 있었고, 베드로가 세 번씩 부인하는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제자들이 완전히 변하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부활을 증거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신약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 이방나라 온 세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겁이 많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담대하게 변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난 진정한 실제 사건인 부활은, 즉 예수님의 몸의 부활은 그러나 역사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완전한 다 설명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역사와의 연속성과 함께 역사적 불연속성이 존재합니다. 그 역사적 연속성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네 가지의 열거된 증거들로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불연속성은 교회가 예수의 부활을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의 측면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면서 어떤 불연속성이 생기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게 계십니다. 이것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가 부활해서 살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미리 알 수 있게 해 주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역사적 연속성과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상속받는 자로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로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처음 믿음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효성중앙교회

담임 정영수 목사

www.myhyosung.net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장로 546(효성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2동 499-1)
Tel . 032)552-5200 Fax. 552-5204

대한예수교장로회 목포만나교회 목포신학교

2011학년도 1학기 신입입생 모집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당신만이 꼭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성이 아니면 당신이 만나지 않으면 계속 어둠 속에서 헤메는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당신을 기다리는 신자학교가 있습니다.

모성련 박사 연구원장 조광표 박사 목포신학교학장

1. 모집과정

과정	구분	수업시간	전용지역	비고
연구원	목회신학사(MA)	전	신학대학(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주간·평일·주말·저녁 2년·3년·4년
	목회신학사(MA)	전	목회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신학석사(MA)	전	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신학박사(MA)	전	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신학원	신학석사(MA)	전	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주간·평일·주말·저녁 2년·3년·4년
	신학박사(MA)	전	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신학석사(MA)	전	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신학박사(MA)	전	신학대학원 및 목회신학대학원	

2. 전형일정
원시합수: 2월 10일
원시교부: 본교 교부(02)242-1017

3. 재출서류
입학원칙: 주일복무 1부
재출학: 재출학증서, 사관 해

4. 특전
1) 연구원 졸업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남녀 목사수신 수 있을
2) 신학과 졸업장은 연구원 과정에 전학
3) 사목목회자는 전문목회사 자격 취득 및 사목목회사 3급, 목회교사 2급, 목회목회사(전) 자격 취득

웨스트민스터목포신학교
Westminster Mokpo Theological Seminary
신학교 학장: 조광표 박사(D.D) 연구원 원장: 모성련 박사(M.A)
530-030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061)242-1017

목포신학교 순천캠퍼스
전남 순천시 저전동 102-2번지 / 담임: 조광표 목사 010-6414-3307

전남 목포시 연산동 1236-4번지
전 화 : 061)274-6461
학장실 : 061)242-1617
자 택 : 061)274-1801
핸드폰 : 011-631-1977

대한예수교장로회 핵심장대현교회
Haeksimjangdaehyun Presbyterian Church

담임 이선 목사

예배시간안내

기안	시간	장소
유치부	주일 오전 9:00	4층
유년초등부	주일 오전 9:00	나사렛성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2층
	주 일 오후 3:30	대예배실
청년부	토 오 일 오후 5:00	4층
	토 오 일 오후 5:00	나사렛성전
성 예배	토 오 일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성 예배	토 오 일 오후 8:00	2층 대예배실
새벽기도회	매 일 새벽 5:00	4층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850-3호 전화 02)430-9107, 02)3402-271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일교회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상임이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대라(단1:17)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정성서수민회)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nister)

성령의 열매 : 영지 지식 사랑 화평의 복음이다 -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3월 17일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주일 예배	주 일	오후 3:00	아침 수련회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독교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소배교인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독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천) 031)634-3590, 부설: 새생명 어린이집 02)646-3107

목회자칼럼

W.C.C.(세계교회 협의회)란?(2)

(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Ⅱ. 에큐메니칼 운동 (Ecumenical Movement)

1.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에큐메니칼(Ecumenical)이나 에큐메니즘(Ecumenism)이란 명칭의 어원(語源)은 거주(居住)(a dwelling), [타(他)]거주하다(inhabit)자(自) 거주(居住)하다(to dwell), “거주하는 지상(地上)”(The inhabited earth)이라는 말에서 유래된다.

성경에는 은파(롬 10 : 18; 행 1 : 8)은 세상(계 3 : 10; 마 24 : 14)은 천하(계 12 : 9; 눅 2 : 1) 그 땅위에 거주하는 주민들, 전종족, 전인류 등으로 표시되어 쓰이고 있다.

이 명칭 사용의 역사적 고찰에 의하면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의 칭호를 보면 “세 계 적 인 분” (The EcumenicalOne)이라는 뜻이다. 이 명칭은 드디어 교황에게만 전용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술어가 세계적인 의미 “일반적”(General), “세계적”(World Wide)이란 말로는 1607년에 처음 쓰여지게 되었다(이종목 : 세계교회운동 1957, p. 2)

1900년 미국 뉴욕에 개최(開催)되었던 선교회의(Missionary Conference)를 세계적 회의(Ecumenical)라고 부르고, 1937년 옥스퍼드 회의에서 “세계적 범위의 그리스도교연합”(Xnunity on a world wide)이란 의미의 말을 국제적(International)이란 말과 구별하여 “세계적”(Ecumenical)이란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여 이런 의미로 오늘에까지 사용되게 되었다(Ibid).

또한 W.C.C.의 총무 비세르트 후프트(Vissert Hooft) 박사에 의하면 역사적으로 이 “에큐메니칼”이란 말의 의미를 7가지로 구분하고 있다(Rouse of Nielded : A History of Ecumenical movement(1517-1948) London, 1954, p. 735) 즉 ① 인간이 거주하는 전지면을 나타내는 말로서 ② 로마제국의 전판도를 나타내는 말로서 ③ 전체 교회를 의미하는 말로서 ④ 전체 교회에 타당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로서 ⑤ 교회의 전 세계 선교에 관계된 말로서 ⑥ 둘 이상의 교회들 간의 연합(Unity)에 관계된 말로서 ⑦ 그리스도인의 일체성을 인식하며 이루고자 하는 태도나 활동을 의미하는 말로서이다.

여하간 이용어가 오늘날에는 온 땅의 그리스도인 연합의식(聯合意識)과

선교운동들을 나타내는 말로서 “세계적 교회운동”이라고 불리 운다. 일반적으로 이 운동에 관한 근거로 예수님의 고별기도“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 : 21)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도들의 교훈“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화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니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얻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니시라, 곧 만유의 아버지 시라 만유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 하시고 만유가운데 계시도다”(엡 4 : 2-6)에 둔다. 수세기동안 계속 분열의 역사를 거듭하는 기독교계에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분명히 기독교안에의 회교교와 난립을 지향하고, “하나의 교회”즉 “교회의 일치운동”을 위한 방향 전환의 기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신앙운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때를 만난 듯이 활발히 전개되는 오늘 날의 이 에큐메니칼 운동은 근본적인(요 17 : 21; 엡 4 : 2-6)에 의거한 에큐메니시티와는 배치되는, 외적통일 즉 혼합주의 적인 “하나의 교회”운동이 되어가고 있으니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문제점이다.

2. 에큐메니칼 운동의 종류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의 일치운동”이라고 정의 한다면, 이 같은 운동은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있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원심(遠心) 운동과 구심(求心) 운동이 동시적으로 작용하여 여러 가지 종류의 원심 구심의 운동이 세계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한철하 op. cit 신학지남 1964, 1집 p. 50)

즉 그 종류(種類)를 보면, ① W.C.C. (The Word Cuncil of Churches=세계교회 협의회), ② I.C.C.C. (International Council of Christian Churches=국제기독교 협의회), ③ N.A.E. 또는 W.E.F. (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복음주의든지 협회), ④ R.E.S. (Reporned Ecumenical Symol=개혁주의 에큐메니칼 대회)등

이다. 이상과 같은 에큐메니칼 운동은 W.C.C.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각기 개별의 것으로 존속하고 있는 것이다.

Ⅲ. W.C.C.편(세계교회 협의회)(The World Council of Churches)

1. W.C.C. 의 약사(略史)

W.C.C.는 몇몇 교회 대표들이 모여 갑자기 조직한 기구가 아니다. 오늘날의 W.C.C.가 출현하기까지는 그 배경에 반세기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전개되어 오는 가운데 결국 오늘날의 형태(形態)와 방향을 가진 W.C.C.의 조직(組織)이 이루어졌다.

이 W.C.C. 조직에 큰 영향을 준 세 가지 별개의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었는데 즉 1910년에 조직된 “국제 선교회의”(I.M.C. the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와 1925년에 조직된 “기독교 생활과 사업세계 협의회”(the Universal Christion Conyence on Life and Work) 및 1927년에 구체화된 “신앙과 제도 세계회의”(The World Conference on Faith and Order)이다. 이 “에큐메니칼 회의”들이 1948년에 이르러 합류하기 시작하여 오늘날의 W.C.C.가 형성되었다. 즉 1948년에 제1차 W.C.C. 대회가 열릴때까지 먼저 “기독교 생활과 사업세계 협의회”와 “신앙과 제도 세계회의”가 각각 근 반세기의 역사를 지닌채 합류하여 W.C.C.를 구성하였고, 1961년 제3차 W.C.C. 대회시에 “국제 선교회의”(I.M.C.)가 가장 긴 역사를 지닌채 W.C.C.에 합류하였다.

그런데 먼저 생각할 것은 1938년 5월 13일 뮌헨에서 제1차 준비위원회가 열리게 되었다. 이 준비위원회는 14명의 의원으로 조직되어 있었으며 위원장에 뎀틀, 부위원장에 보트와 제르마노스 (S. Germanos)와 보그너 (M. Boegner)가 선출 되었다. 그리고 다시 보그너를 운영위원장, 후프트 (Vissert Hooft)를 총무로 임명하여 행정력을 강화하였다.

한편 I.M.C.와 W.C.C.의 관계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다. 즉 I.M.C.의 구성단체는 각국의 협의체나, 기독교 협의회인데 반하여 W.C.C.의 구성단체는 각교회 (교단 또는 교파)였으므로 이 두 단체가 쉽게 하나가 될 수는 없으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연합위원회를 조직하되 I.M.C.의 업무를 겸직하게 되었다.



이원석 목사

은광교회 원로,
본지 교문

갑절의 능력을 받자(6)

* 왕하 2:1-11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실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땀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1. 2절 : 땀을 2. 4절 : 여리고 3. 6절 : 요단

(1)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바로 왕 출애굽기 1장은 3가지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1. 새로운 시대의 출발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다른 사람은 다 죽고, 애굽으로 처음 올 때 70명에서 40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손은 생육이 증대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 2. 애굽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게 됨으로 요셉이 애굽에 배운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왕이었다는 것. 3. 핍박만으로는 부족하여 애굽에서 태어나는 이스라엘 남자를 모두 죽이려고 하는 새로운 전략을 편다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받고 핍박하고 진멸하고 죽이려고 하면 회한하게 더욱 더 번식하고 창성하고 늘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학대든 고난이든 핍박이든 그것이 도리어 번식하고 창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교회의 부흥은 어려운 시대에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도리어 축복과 부흥과 성장의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2:23-25 부르짖는 신앙,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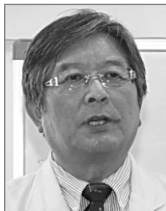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고 하던 목적이었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이로 말미암아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구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도리어 구원자를 세우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도 성령이 강림해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는 부흥되었습니다.

행7:55절 부터 보면 스테반은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고 교회는 어려움을 겪지만 도리어 위대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행 8장의 사마리아 성 부흥도 스테반 사건 이후에 빌립 집사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고, 행 11장의 안디옥교회 부흥도 스테반의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난 이후에 각지로 흩어진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 하면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핍박을 받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음부의 관세를 흔들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이 오면 도리어 개혁되고, 더 발전되고 순수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나 분리되게 되고, 가라지는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게 되지만 알곡은 더욱 더 교회에 붙어 있게 되어서 그 결과 교회는 더욱 순수해지고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환난이 오든가, 핍박이 오면 기도하라는 신호로 알고 더욱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5:10 핍박의

임용재 장로

강남중앙침례교회



원인도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변하여 오히려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 창 15:13)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죽을 수 없어 살아야 되는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주인과 구별되고, 상전보다 높지 못하며, 충성하여야 하며, 순종하여야 하고, 주인을 공경하여야 합니다. 먹는 것도 살기 위하여 밭을, 마시는 것은 물을, 입는 것은 일상의 옷을, 사는 곳은 장막, 곧 천막에서, 하는 일은 농사와 바로의 공전을 짓는 노역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하며, 예수의 흰옷으로, 즉 거룩한 새마포 옷을 입어야 하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애굽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요즈음의 애굽 생활은 어떻습니까? 먹는 것은 최고로 맛있는 곳만 찾아다닙니다. 별미를 찾아 거러에 구애받지 않고 다닙니다. 실패 먹고 살이 찌자 살 빼기하느라고 죽자 살자 운동을 하지만 그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임용재 장로(강남중앙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임용재 장로 H.P 010-6203-6632

장애인과 손잡고 밀알콘서트관람!

(사)밀알복지재단(홍정길 이사장)은 제8회 밀알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된다.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사장 홍정길)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2일 저녁8시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음악을 감상하는 제8회 밀알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밀알콘서트에는 장애인오케스트라인 은누리사랑합창과 소프라노 김수연, 바리톤 공병우, 오보에 조정현, 카이로스앙상블 등 세계정상에 선 연주자들이 출연했다. 특히 '카이로스앙상블'은 왕성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정

상의 솔리스트들로 재구성되어 활동을 하는 앙상블로 밀알콘서트에 제의를 받고 뜻 깊은 마음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리더인 윤경희 교수는 '각자가 다른 소리를 내지만 합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이루는 앙상블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을 의미하는 밀알콘서트의 의미에 부합되는 하모니를 선사하고자 떨리는 마음으로 연주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나림 아나운서의 사회와 도슨트 로봇 '아피'의 곡해설도 함께 이루어졌다. 밀알복지재단의 행정적 상임이사는 '밀알콘서트는 장애인이 세상 밖으로 나와 합



께 즐기고 소통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 주는 뜻 깊은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통합을 위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말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로봇이 함께하는 이번 제8회 밀알콘서트를 통해 마련된 기금은 장애인주·단기보호센터 설립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소진우 목사 2010년, 2011년 성회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사 소진우 목사

H·P : 010-5267-1434

교회 : 02)3391-9676(대)

- 로고세계선교협의회 부총재
- 라이프월드선교협의회 대표회장
- 극동방송컬럼리스트
- 백성TV컬럼리스트
- 저지스티임즈 사장
- 예복교회 담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2010년 1월	2010년 4월	2010년 7월	2010년 10월	2011년 1월	2011년 5월
4-7 도곡산기도원(임재진 원장) 10 대광교회(윤성복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3 마가의대(박영민)목사 원장 17 경향교회(한철하 목사)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20 신광교회(조호원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신일교회(최재길 목사) 28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5-7 도원교회(유순기 목사) 12-13 정기노회 13-15 호진교회(이영주 목사) 1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9-21 이레교회(황송주 목사) 21 동명기독교연합회(미수교회) 26-30 선교자문회	5-7 성신교회(이영배 목사) 1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2-16 신학(생)계통 특별예배 마나 19-22 에버다듬길기도원(최민숙 원장) 23 2개기성교회(윤동부원 합동회) (노베드로 목사) 26-29 임마누엘기도원(김소원 원장)	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4-6 서북교회(배정락 목사) 8일 한말산기도원(이영준 원장) 11-12 정기노회 12-14 주영광교회(김상국 목사) 16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17-20 동서울성령교회(라미동 목사) 22 소망기도원(연애)에 원장) 24 주님의교회(양향기목사님)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5-27 초대교회(이종호 목사) 28일 천양이거리는 교회(김향주 목사님)	1/1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3-5 동탄사랑의교회(이종훈 목사) 7 한말산기도원(이영준 원장) 9-15 신년특별목회성회(예복교회) 13 개관교단제례예배 16-19 성가대교회(전종호 목사) 24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4-7 갈렙산기도원(이유권 원장)	2-4 서울사랑의교회(이영준 원장) 9-12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6-18 동대전교회(홍우열 목사) 23-25 갈길교회(정영준 목사) 29-64 성가대교회(전종호 목사)
2010년 2월	2010년 5월	2010년 8월	2010년 11월	2011년 2월	2011년 6월
1-3 한샘교회(천복수 목사)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0 독산교회(김의복 목사) 10 성가대교회(전종호 목사) 15-19 선교자문회 2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2-24 평택중앙교회(김복록 목사)	3 원광산성교회(김종호 목사) 9 성문교회(이종래 목사) 10-12 새말교회(김성진 목사) 1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7-20 평은기독교연합회(배 원장) 20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23-26 미련교회(이종원 목사)	2-5 에버다듬길기도원(이영배 목사) 8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9-12 성산수영관(윤호균 원장) 16-18 경성교회(이영준 목사) 23-25 진접와촌지역 연합성회(이영준 원장) 26 양광기독교연합회(최 원장) 26-27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30-91 푸른초교회(김종철 목사)	1-3 신천장로교회(김영규 목사) 8-10 경천교회(이영준 목사) 15-17 수원평안교회(김영준 목사) 22-24 평안교회(김기영 목사) 26 소망기도원(연애)에 원장) 28 임마누엘수영관(이수영 원장) 29-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00 선교자문회	31-4 캠퍼스다 선교대성회 6 호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7-9 울산반곡교회(김영준 목사) 14-17 성산수영관(윤호균 원장) 2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23 마수교회(전종호 목사) 27-32 평택중앙교회(김종호 목사)	6-8 주우리교회(이영준 목사) 12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3-17 천교사랑문(노회신교원 원장) 20-22 원도순복음중앙교회(정영준 목사) 27-29 선한이웃교회(전종호 목사)
2010년 3월	2010년 6월	2010년 9월	2010년 12월	2011년 3월	2011년 7월
봄철축복대심방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 화광교회(윤호균 목사) 20 동서울성령교회(라미동 목사) 20-1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31-3 진주기도원(김종호 원장) 6-10 신령부흥성회(예복교회) 8 성산기도원(박영민 원장) 13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4-16 열방교회(신복수 목사) 18 일산금리교회(주성민 목사) 21-24 갈렙산기도원(이유권 원장) 25 한말산기도원(이영준 원장) 26-30 동성중앙교회(이수원 목사)	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6-8 회계원장교회(김종호 원장) 13-16 고대총회 15 정동교회(백형기 목사) 20-24 인도선교회(백형기 목사) 26-28 성산성경교회(이영준 목사)	3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성준 목사) 13-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24 00산교장본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곡제일교회(소도영 목사)	7-10 캠퍼스다 선교대성회 20 호창중앙교회(최복태 목사)	4-6 새정교회(이영준 목사) 10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1-15 신학(생)계통 특별예배 마나 18-21 소망기도원(연애)에 원장)
봄철축복대심방	2010년 12월	2011년 4월	2011년 8월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 화광교회(윤호균 목사) 20 동서울성령교회(라미동 목사) 20-1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3 갈렙산기도원(임재진 원장) 6-8 예수비전교회(김성준 목사) 13-1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0-24 00산교장본 26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7-29 논곡제일교회(소도영 목사)	4-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0-12 정기노회 12-14 장전교회(이영준 목사) 1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18-20 내곡교회(양향기 목사) 25-27 신일장로교회(이영준 목사)	1-4 금산임마누엘수영관(이수영 원장) 7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8-11 광은기도원(김현배 원장) 15-18 갈렙산기도원(이유권 원장) 22-25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29-91 천보산기도원(유택진 원장)		

“성경으로 본 건강학” 자연과 더불어 심신의 건강을!(30)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마 4:23)

아이들은 신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아무런 힘들어도 개의치 않는다. “허린 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하면 이 점에 관한한 더욱 그렇다. 하나님께서 주신 타고난 품성의 발현일까. 아직 문명의 때가 될 물은 닳았을까. 하여튼 아이들의 자연에 대한 친화도는 어른보다 훨씬 높다. 우리 아이들이란 해도 그렇다. 우리 가족이 즐겨찾는 북악산의 성곽코스 한 시간씩 걸리는데도 기뻐한 있으면 가자고 아우성이다. 다섯 살짜리 막내도 난코스를 탐험하는 재미에 빠져 힘든 줄 모른다. 인간은 관계속에서 성장한다. 인격의 성숙에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물론 인간관계가 중요하긴 하나 이 경우 성장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 오히려 비활력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즉 인간을 무한정 신뢰할 수 없는 속마음이 끝없는 경계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만물보다 가치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렘 17:9)는 성경말씀이 날이 가고 경향이 쌓일수록 더욱 실감나는 것은 웬일일까?

인간관계를 제외한다면 현대인이 접촉하는 대상은 오열된 물과 공기, 콘크리트 벽으로 된 아파트와 사무실, TV, 신문, 자동차, 지하철 등이 고작이다. 이러한 대상은 그냥 존재하거나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강요할 뿐 상호작용이 불가능하다. 약동하는 생명의 교감

이 있었리 만무하다. 이러한 문명은 인격의 성장이나 도덕심의 고양, 아름다움, 평화, 화해, 풍요로움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이 시대의 불행은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창의력과 감수성을 풍요롭게 하고 현대문명의 온갖 노폐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위 콘크리트문명에서 파생된 온갖 스트레스와 정신질환은 생명이 약동하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서 치료될 수 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에 대한 진지한 탐구도 자연의 품 속에서 기존의 모든 관계의 끈을 잠시라도 끊어버릴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뜬눈대로 자연과 벗삼아 지내는 것 자체가 최고의 정신 활동이자 최상의 건강법이다. 국토의 대부분이 황무지인 이스라엘 땅에서 자연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은 갈릴리 호반이라고 한다. 마치 “진흙속에 박힌 사파이어”라고 할 수 있을까. 또한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땅도 비옥하여 농사도 잘 되고 호수에는 물고기가 많아 수려한 자연 환경과 더불어 여유있는 생활이 돋보이는 지역이다. 인심과 자연이 무관하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이 지역 주민들의 심성이 고운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풍요로운 인간성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이러한 생활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예수님은 생의 대부분을 아름다운 갈릴리에서 보냈다. 공생애 기간 예수



황성주 박사

님의 활동도 거의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다. 그의 설교와 기도와 목성이 곧 갈릴리의 산물이다. 어부에서 대사로 변신한 당시 제자들도 대부분 갈릴리와 인연이 깊다.

그렇다면 “구속사역의 완성”이라는 예수님의 사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수할 수 있었던 “건강의 원동력”도 갈릴리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을까. 창조주인 예수님이 아름다운 자연과 건강의 함수관계를 모르실리 없을 것이다. 한방에서도 좋은 공기를 최고의 보약으로 친다고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후지산의 맑은 공기를 시판하고 있으며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삼림욕의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그리고 인류역사상 위대한 인물이 각박한 도시문명 속에서 탄생한 적이 없다. 위대한 사상, 위대한 문학, 위대한 예술은 자연과 더불어 잉태되고 성장하게 마련이다. 자연이 위대한 정신의 산실이었다고 하면 “자연과의 친화도가 심신의 건강을 좌우한다”는 자연건강법의 논리는 결코 비약이 아닐 것이다.

황성주 박사 ‘성경으로 본 건강학’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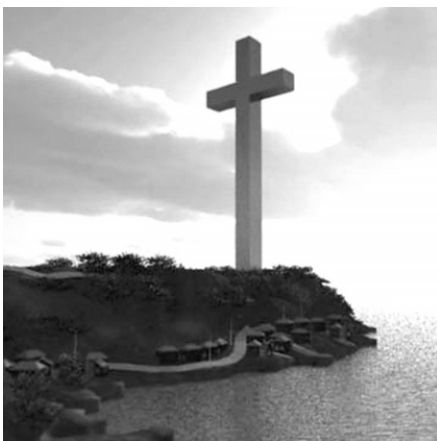
생활칼럼**위로와 격려의 말은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다**

점심을 먹은 뒤 최 과장은 자신의 자리에 느긋하게 앉아 있었다. 이때 앞에 앉아 있던 직원이 말했다. “아휴, 배고파.” 이 말에 최 과장은 눈살을 찌푸린다. “점심시간 지난 지 몇 분이나 됐다고 벌써 배가 고픈다는 거야?”

점심도 거른 채 자기가 시킨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직원에게 아무 것도 모르는 최 과장은 대뜸 싫은 소리를 퍼붓기 시작한다. 그러나 한두 마디로 끝났다면 그 직원은 이유라도 설명했을 텐데, 최 과장은 계속해서 야단을 친다.

직원은 슬슬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다. 자기 탓에는 바쁜 것 같아 점심까지 걸려 가며 일했는데, 그것도 모르는 매정한 과장은 자신을 먹을 것만 밝히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그 직원은 곧 이렇게 생각한다.

내가 미쳤지. 누가 알아준다고 이렇게



점심시간까지 바쳐가면서 일했담.” 직원은 더 이상 과장의 지시에 따르고 싶지도 않고, 이미 다 끝난 일이지만 과장에게 보여 주기도 싫어졌다. 사실 피곤하다는 말은 잠깐의 뉘두리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에 몰

두하다가 잠깐 쉬면서 자연스럽게 입에서 나온 것이다. 일을 많이 시킨다고 상사를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말에까지 굳이 꼬투리를 잡고 늘어질 필요는 없다. 자신의 일이 더 많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고 만다.

지나가는 말로 얘기하더라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어야 한다. 힘들다는 말에 말꼬리를 붙잡고 늘어져보아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당이 피곤한가?” 요즘 너무 일에만 매달려 있는 것 같아.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 직원은 피곤이 절로 가신다. 상대방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기쁨과 그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별기고**배아 복제에 대한 성경적 답변**

얼마 전의 뉴스 속에서 이 나라를 들뜨게 하던 사건이 있었다. 한동안은 배아복제에 대한 논란이 현여를 더위처럼 기승을 부리는가 싶더니 잠시 잠잠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다시 유럽의 한 모퉁이에서 이문제가 법적 보장속에서 다시 진행되는 뉴스들을 접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임상시험에 대한 기사들을 다시금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많은 견해들이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선을 그어 주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여기서 해답을 얻어 보고자 한다.

배아복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늘 수식어처럼 장식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이다. 무병장수시대가 도래했다느니 난치 및 불치병의 치료값이 열렸다는 등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적 자원을 아끼지 않는 듯한 흐름에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은 찬반 논쟁의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토론들이 한창이다. 이즈음에서 정립되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기독교적 입장은 어떠한가? 그동안 침묵 속에 있는 듯 하던 교계에서도 실질적 관심과 의사를 표출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본다. 분명 교계는 사회를 이끄는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하기에 뒷전에 밀려있거나 모든 것이 진행될 후에 따라가는 듯한 느낌을 가져서는 결코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의 진행을 보면 대개의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거나 윤리적 혹은 인간적 잣대로 찬반 논쟁 속에 있어서 자칫 혼탁한 물결 속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져있다. 자신의 사고를 통한 진찰은 그것이 옳을지라도 동일한 반박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변호하려는 노력에는 격려를 보내지만 결국 결론 없는 논쟁만 양산할 수 있어서 자칫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더욱 혼란한 사고에서 방황하게 할 우려가 있다. 우리 신앙인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듣고 그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듣고자 하는 것이다. 막연히 창조설서의 파괴리든가 윤리성에 걸림돌이 된다는가 복제인간이 생긴다면 말이 되겠는가 등등의 열변으로는

설득력이 없다. 성경적 토대가 없는 답변은 그 사람의 의견에 불과할 수 밖에 없기에 또 다른 반박을 불러들이는 것이다.

1996년 영국의 로슬린연구소에서 복제 양 돌리를 선보인 이후로 UN까지 개입하여 의견을 내놓을 정도로 이제는 복제에 대한 견해들을 내놓는데 너나할 것 없이 불을 뿜어고 있다.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배아복제에 대한 점이다. 여기서 배아란 태아와 구분이 되는데 이는 수정란이 만들어진 후 14일 전까지의 세포덩어리를 일컫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부 교계에 있는 분들 중에도 태아 이전이기에 생명체와 관계가 없다든가 영혼의 문제를 논할 단계가 아니라든가 하는 언어로 배아복제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배아, 태아, 줄기세포 등에 대하여 익숙치도 않고 의미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그저 그런가하며 따라가기기도 한다. 배아에 대한 다양한 생물학적 설명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숙지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 상태에 대한 성경적 답변, 성경을 원하는데에 주제가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장을 함께 열어보기로 하자. 전반부에는 엘리사벳에게 세례요한이 잉태될 것을 예언하고 또한 이 예언이 성취되어 26절에는 여섯째 달로 접어들고 있다. 이때에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수태할 소식을 전한다. 마리아의 걱정스러움이 설득되고 38절에서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하면서 주님은 마리아를 통하여 오시는 과정을 갖게 된다. 이때에 마리아가 유대의 한 동네에 머물던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장면이 39절로부터 이어져 있다. 마리아의 문안을 들은 엘리사벳의 뱃속 아이 즉, 미래의 세례요한은 복중에서 기뻐 뛰고 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는 소리를 들어보자 “여자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42절. 현재 마리아 태중에서 어떤 상태로 계시는 분을 아이로 표현하고 있음에 주목하자. 또한 43절에서는 “내 주님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하는데 마리아를 주님의 모친으로 즉 태중의 그 분을 주님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럼 현재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태중에서 어떤 상태로 계신가?



정기한 목사

사단법인 기독교학술원 이사장
민족복음화운동본부 학술원장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회장
세계원주인교회 회장
CJTN방송 저지스타임즈 상임이사
부천 천원중앙교회 담임목사

현재 마리아는 39절에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라고 하였는데 이때란 엘리사벳이 42절에 아이라고 일컬었던 분, 43절에서 주님으로 불렀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신 기간을 설정해 줄 수 있는 때이다. 본문은 38절에서 순종의 고백을 한 후 엘리사벳을 만나기까지의 공백 기간이다. 일반적 영어 표현은 A few days 혹은 KJV에서 in those days로서 이는 적어도 그 날 혹은 몇 날에 불과하다. 이 원어가 쓰이는 신약의 수많은 구절들이 낮(마4:2; 막4:27), 사흘(마6:7; 행9:9), 옛새(막9:2; 요12:1), 여드레(요20:26; 행7:8)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길게는 놀라울게도 열나흘(행27:33)에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의 입술을 통한 외침은 42절에서 아이요(원어는 열매 혹은 자손 행2:30), 43절에서 주님이란 표현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보면 배아도 분명 생명으로서 지시되고 있음을 발견케 된다. 이는 또 다른 변명거리를 불러들일 수가 없는, 인간의 의지에 의하여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님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반박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은 오히려 아니다. 배아복제가 아닌 폴수혈액이나 제대혈을 활용하는 성체줄기세포의 연구에는 박수를 보내며, 또한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에 대한 기대와 기대를 아끼지 않는다. 우리의 신앙은 과학의 발전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진전되어가는 과학을 반대하지도 않는다. 다만 성경적 토대 위에서 진보가 이루어져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묻고 또한 답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혼란도 없고 올바른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최초 PC형 완전 칼라주보인쇄기**2011년 신제품!!****세계최초 PC형 3도 칼라주보인쇄기**

8.5인치 대형 스크린

대용량 잉크로 대량생산
잉크(4EA) 이외에 별도의 소모품이 필요 없습니다.

FORCJET엔진사용 분당최대150매
고정 직렬 하드로 세계최고 150ppm
장당 잉크비 20원 (20%차트)

최대적재 용량 2,500매

ADF옵션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
A 사이즈, 주보까지

★ **세계 최고의 속도**
분당 150매
시간당 9천매 생산
⇒ 작업시간단축

★ **저렴한 칼라비용**
컬러유지비 80%절감
⇒ 장당 20원 (20%원고)

★ **슬림하고 컴팩트한 디자인**
⇒ 사무환경 최적화

★ **Flexibility**
최대 548mm 인쇄
⇒ 다양한 출력물제작

★ **High Speed**
150매/분 (9천 매/시간)
⇒ 작업시간단축

★ **One Pass Two Color**
드림2개 동시장착
⇒ 동시 3도 인쇄

★ **Color Performance**
1칼라추가로 인지도 향상
⇒ 풀 칼라 구현 효과

★ **Flexibility**
최대291X412mm
(카드, 봉투, 엽서)
⇒ 다양한 처리능력

고생산성 (High Speed)

- ① 분당 150매의 고속출력
- ② 3도 양면주보 500부 인쇄시간 9분
- ③ 칼라드림 교환 없이 동시 3도 인쇄
- ④ 고속, 낮은 코스트로 시간 비용 절약

고해상도 (High Quality)

- ① 600dpi의 고 해상도 출력
- ② 이미지 및 작은 글씨도 선명
- ③ 독자 3도 인쇄기술로 칼라인쇄
- ④ 최대 인쇄 사이즈 291X412mm, 용지46~210g/㎡

세계최초! 세계최저!!

600~700만원 하던 기계를...

200만원대 출시기념!

가격은 흑백! 품질은 칼라!
이미 2,000여 개 교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A3를 한번에 자동으로 양면을 컬러/흑백, 복사/프린트/스캔 가능한 슈퍼 복합기 ₩6,600,000

₩2,990,000

컴퓨터 복사기, 주보 인쇄기, 양면 (옵션), 팩스 (옵션), 스캐너, 흑백 복사기, 흑백 프린터

PC형주보인쇄기
비용절감 90% 처리속도 100배!!

최고 90% 이상의 비용절감과 제2인쇄기·복사기·프린터 기능을 동시에 한대로 갖춘 고품질성! 뛰어난 내구성과 고품질도의 다양한 컬러인쇄!!

2011년 신제품출시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1,595,000
컴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890,000

동형제본 & 접지기
B5-A3까지 종형제본 접지
13 이상의 주보, 교재, 책자 등
20매 80매까지 가능

주보접지기
2,3,4단 주보 한번에 접지
접히는 간격조절 가능
분당 12매 접지

주보 인쇄기 보급 5,000대,
전자등 디지털 칼라 주보 복합기 2,000대 기록 달성!
영광기업을 사랑해주신 교회와 목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영광기업 대표이사 정학영 장로
H·P : 010-5779-0691, 010-3651-8572

영광기업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www.jubo114.com

종로전시장 ※50여종의 기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앞)
Tel. 02)764-5890~2 Fax. 02)764-5893 공장. 032)551-4114



가정예배

주님과 함께 아침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6) 하나님께 돌아가면

성경: 사사기 16장23절-31절 찬송가 331장
삼손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과 야유를 받으며 재통까지 부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삼손을 사용하셔서 다곤 신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헛된 우상임을 증명해 보 이십니다. 비록 삼손이 나실인의 서약을 깨뜨리고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예전의 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였을 지라도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 주십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범죄하여 넘어졌을 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 당당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17) 미숙에서 성숙으로

성경: 사사기 17장1절-13절 찬송가 514장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신당과 예복, 드림까지 갖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세운 것들을 합법화하고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제사장을 세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 받기 위한 입니까? 후자를 위해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것은 미숙한 믿음 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숙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8) 불신앙의 결과

성경: 사사기 18장1절-13절 찬송가 409장
본문을 보면 단 지파가 정탐꾼 다섯 명을 보내는데 이는 기업으로 받은 땅이 없어서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다른 지파들보다는 적은 땅이었지만 그들에게도 할당된 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채 오히려 아모리 족속에게 ☹겨나고 맙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이어 받는 신실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9) 불감증

성경: 사사기 19장1절-9절 찬송가 335장
레위인은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지만 본문을 보면 레위 인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두어 쾌락을 즐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첩은 음행을 저지른 후 친정으로 가 뿔뿔하게 아버지

20)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경: 사사기 19장10절-21절 찬송가 520장
장인의 만류로 5일씩이나 지체한 레위인은 오후가 돼서야 첩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들이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 해가 지기 시작하여 그의 종이 그곳에서 유숙하자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레위인은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여 기브아로 떠나게 됩니다. 본인의 삶은 이미 타락한 대로 타락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닌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한 삶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만 보여주기 위한 거룩한 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1)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

성경: 사사기 19장22절-30절 찬송가 379장
레위인은 해가 질 무렵에 '여부스'에 도착하지만 이방인의 성읍보다는 동족의 성읍에 머물고자 하여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이런 생각은 도리어 화를 자초하게 됩니다. 그가 데리고 왔던 첩이 윤간을 당하고 복숨까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26장52절을 보면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가 행하는 대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이 음행을 즐기다가 결국 그 음행으로 당하듯이 사람은 자기의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저주를 심고 저주를 거두지 말고 축복을 심고 축복을 거두며 살아가는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2) 가정에서부터

성경: 사사기 20장1절-23절 찬송가 216장
본문을 보면 실제로 죄악을 행한 자들은 불랑배를 몇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동족상잔의 비극으로까지 번진데에는 베냐민 족속의 무책임하고 완악한 태도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보다는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고 파멸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처럼 먼저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위에 시작되는 조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빌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들의 가정에

서부터 시작되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키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3)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경: 사사기 20장24절-48절 찬송가 217장
이스라엘 자손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베냐민 지파에게 패하고야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이 베냐민보다 낫다는 영적인 교만과 자만심을 품고 전쟁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울며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화복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배제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직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오직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4) 왕 중의 왕

성경: 사사기 21장1절-25절 찬송가 26장
25절 말씀을 보면 사사기의 저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 마디로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왜 이스라엘에 사사기 전체에서 드러나는 불법한 행위가 일어났냐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을 다스릴 왕이 없으므로 그들의 모습이 혼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영적인 혼란을 맞이할 때 그들의 삶속에는 이미 왕중의 왕이신 하나님의 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느끼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왕 중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믿어야 합니다.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5) 하나님의 은혜

성경: 마태복음 1장1절-17절 찬송가 404장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족보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나 자신이 예수님의 영적인 족보에 기록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누구도 상관없이 예수님의 족보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출생과 성별 나의 의로움과는 상관없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6)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성경: 마태복음 1장18절-25절 찬송가 94장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 속에 그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분과 함께 동행 하며 복음을 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7) 성취하시는 하나님

성경: 마태복음 2장1절-3절 찬송가 117장
본문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 기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미가 5장2절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말씀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상황과 여건이 비록 절망적이고 낙심이 되어도 말씀의 소망과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28)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성경: 마태복음 2장4절-8절 찬송가 453장
헤롯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장소를 알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없애기 위해 자신도 경배하려고

영적성장을 위해서.....

거짓된 회개

출애굽의 기사에 의하면 하나님의 재앙에 굴복한 바로가 자신의 무능을 시인하고 고백했던 회개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나 그의 고백은 진실된 참회의 고백이 아닌 거짓된 회개의 모습이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능을 고백하였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는 않았다. 거짓된 회개는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 범죄이다.

약 2: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경건한 슬픔에서 나오며 이는 구원을 이루게 된다. (고후7:10) 성경에 진정한 회개에 대한 구절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 있다. 즉 집을 나간 탕자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같이 꾀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 회개함으로써 사울이 바울로 바꾸어짐같이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사람을 바꾸어 놓으며 구원에 이르게 한다. 성경에 나타난 진정한 회개의 모습들은 다음과 같다.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① 나만의 회개(왕하 5:15) "나아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니이다. 청컨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담임 김광식 목사
과천 토브교회
본지 후원이사



② 므낫세의 회개(대하 33:12~13)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인 줄을 알았도다"

③ 삭개오의 회개(눅 19:8~9)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사오며 만일 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성경적 사도행전교회로 부흥케 하며 신랑예수 맞이할 신앙성장 위한 종말시대 바른성경신앙 말씀무장 부흥성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 부흥회 내용과 특징

사도복음 성령 영성교육을 꼭 받아야 할 분

1. 사도행전 초대교회 신앙회복 사명충성하게 됩니다.
2. 속죄구원 부활 천국순종 영생 재림신앙으로 무장됩니다.
3. 육에 속한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한 신앙으로 성장됩니다.
4. 종말 추수 환난 심판 때 천국 알곡으로 결실하게 합니다.
5. 부부가정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6. 1108명이 전도된 배가전도 전략집목 진정한 부흥이 됩니다.
7. 바울같이 1-3년 지속적 전도로 성경적 교회로 성장하게 함



강사 박길찬 목사
교회: 054)439-3353
H.P: 017-527-9191

- 경북 상주 출생
- 칼빈신대, 안양신대
- 상주 신상교회 개척, 건축
- 김천어모교회 개척 봉헌
- 오산 광은기도원 초대 원목
- 부천 상광교회 전도목사 (1108명 전도 성과)
- 청교도 부흥사회 상임회장
- 세계한민족부흥협의회 상임회장
- 세계주영광부흥사회 부총재
- 김천 예수원, 교회

“성경신앙 배가전도 부흥회를 인도한 교회들”

부천삼광교회	(심원용 목사)
서서울중앙교회	(한영훈 목사)
시흥 새하늘교회	(박승식 목사)
김천 황금동교회	(이현세 목사)
부천 새관조교회	(김남혁 목사)
시흥 성령교회	(김명주 목사)
인천마가다라방교회	(박장원 목사)
경산 새경산교회	(이장우 목사)
동해 명성교회	(이영택 목사)
부산 금샘은혜교회	(신승달 목사)
대구 참사랑교회	(간석길교회)
이외 다수 교회 집회 인도....	

진정으로 변화되는 성경신앙훈련 믿음에서 천국까지

성경신앙대학

(이제는 신앙의 병든자, 약자도, 입원 치료받을 때)
매주 : 월~수, 목~토 연중 입원 교육 치유
10명~100명 교회별, 기관, 단체, 담뽀임소
강사: 박길찬 목사(김천 예수원 원장)
입소비: 1인 2박 3일 4만원(숙식일제)
입소교회에서 식사준비하면 사용료 2만원
참고: 교육 교재는 각자 구입
교육 신청 문의 017-527-9191 / 054-439-3353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 천 예 수 원

주소: 경북 김천시 어모면 은기리 559 김천예수원 예수원교회
원장: 박길찬 목사 CJTN신문방송 및 저지스티임즈 상임이사, 세계부흥사협의회 부총재
(교회집회 강사초청은 연락주세요) ☎054) 439-3353 H.P 017-527-9191
찾아오시는 길 : 교동편 무궁화호, 새마을호 김천역 하차, KTX 김천구미역 하차

태국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전승주 선교사

10월까지 우기가 시작되어 벌써 한 달째이다. 이때 전갈, 지네, 각종 뱀 등 온갖 곤충들과 짐승들이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들고 외치는 선교사역에 힘쓰고 있다. 태국에 선교사가 들어 온 것은 180년 전, 현재 기독교인은 0.5%미만이다.

40,50년 전만 해도 어린이들이 교회마다 가득했을 때 한국 교회는 비전이 있었다. 1980년 후반까지 교회가 유지된 어린이들로 차고 넘쳤었다. 당시 어린이 전도협회의 통계를 보면 어린 시절 교회에 한번이라도 출석했던 사람들 중에 80%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치앙마이에서 선교활동 중인 전승주, 손호자 선교사 부부는 한국에서 아동부서에서 오래 동안 사역을 한 경험이 있다. 그들은 태국에서 어린이들을 전도하고 있다. 전 선교사 부부는 어린이들에게 태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며 기도하고 있다.

지난 5월 5일, 태국 주변국 선교사들과 현지 목회자와 함께 방과 후 교실을 할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창립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시작된 ‘손으로 하는 기초수학 셈’이다. 한국에서 오래 동안 수학자였던 평신도 선교사가 2009년에 치앙마이에 들어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위해 전승주, 손호자 선교사 부부에게 기초수학 셈을 전수해 주었다.

현재 방과 후 교실 프로그램으로 이 기초수학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국제본부, 국제학교 선교사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방문하는 선교사들에게 이를 가르치고 있다. 전승주 선교사 부부는 많은 선교사들과 지인들에게도 이를 가르쳐서 어린이이들을 전도하는데 목표이며, 기초수학 자격증을 발급하여 라이선스를 활용할 계획이다.

태국에 있는 많은 학교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온다. 또한



태국 선교현장 기념촬영

태국 선교 180년, 기독교인 0.5%미만,

영혼구원을 위해 뛰고 있는 선교사들

너무도 열악한 조건에 한국에 기도요청을.

고아원이나 어린이 단체에서도 기초수학을 배우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전 선교사 부부는 하이-파이브 기초수학의 명칭으로 불교권이나 제3세계에도 주님의 귀한 도구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기도를 부탁했다.

1년 정도 임상이 끝나면 교제가 나오는데 수학교과 1권 당(4000원)정도가 들어가는데 어린이 한명을 전도하는 선교비로 생각하고 많은 기도와 협조를 원하고 있다.

현재 전 선교사 부부는 선교센터가 없어서 집에서 현지인 지도자와 미안마 선교사 등을 가르쳐 2기생이 배출되었다.

이 사역이 소수부족에게도 계속 해서 진행되고 있다.

현지 목회자와 미안마 사역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10년,20년 이 땅에 부흥을 바라보며 훌륭한 믿음의 인재들이 이 땅을 이끌어나가는 주력자로 만들어 나가는 프로젝트로, 마을을 이동하며 가르치기 위해 빈 프로젝트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 5월 15일 주일/산속 흑몽족 소수부족 200여 명이 벽잔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환자들을 위한 기도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자매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를 준비하던 중에 살아났다. 죽은

자를 위해 목탁을 치며 예불을 진행하던 승려들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놀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 주셨다고 말하고 그들을 전도했다. 자매 어머니(전도사)가 교회를 섬기고 있다.) 벽잔교회는 허스를 하다. 성도는 30~40여명 정도, 어린이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전승주 선교사 부부는 어린이 사역에 대해서 예배 후 현지 사역자와 의논하고 돌아왔다.

어린이는 장래의 희망이라고 말한다. 이들에게 수학의 원리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2012년 어린이 캠프를 위해 준비할 예정이다. 산속 어린이들에게 주님께 소망을 두는 비전을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계획은 인성과 지성과 영성에 대해 가르친다. 현지 목회자들, 한인선교사들도 사역에 귀한 도구라며 좋아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다는 전 선교사 부부이다.

기도요청

1.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와 후원을 위해서...
2. 9월 10월에 있을 흑몽부족 마을 교회 지도자 훈련을 위해(양복 12시간).
3. 제1회 기초수학 경시대회(장소:치앙마이 대학교)가 11월 예정..
4. 중국에서 초청을 받아 지도자 영성훈련 강의가 시간 - 란주에서 개최 (상당충만을 위해).6월 중순에 출발

후원계좌 국민은행304101-04-200981(전승주 선교사)
태국 치앙마이 전승주 손호자 선교사(본지 지사장)



의려선교로 주민들을 치료하는 선교사들

윤복희 권사, 60년 만에 전국 첫 콘서트 열어

“65세의 나이 그래도 무대에서 가장 편안합니다”

‘무대 환갑’을 맞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윤복희(65)의 얼굴은 행복이 가득하다. 그는 21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데뷔 60년 만에 처음으로 단독 콘서트를 여는 소감을 진솔하게 밝혔다.

“제가 가정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리사이블을 한 번도 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연줄이나 배경도 없이 TV나, 라디오는 물론 연극 등 모든 장르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건 부족하지만 제게서 삶의 위로를 원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복희 권사는 1952년 아버지가 연출한 가무극 ‘크리스마스 선물’을 통해 처음 뮤지컬 무대에 섰다. 세계적인 재즈스타 루이 암스트롱의 권유로 미국에서 음악생활을 시작한 그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미국에서 루이 암스트롱을 비롯해 유명 재즈 뮤지션과 함께 감히 같은 무대에 섰던 것은 참 행복한 기억이죠. 지금 같으면 뭘해서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참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재즈는 평생 제 음악적 토양이 되었죠.”

위낙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했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무대는 잡지는 안방보다 조금 더 편안한 곳으로 느껴진다는 윤복희 권사.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나서야 했던 차가운 무대는 족쇄처럼 여겨질 법도 하지만, 그런 기억은 어른이 된 윤복희를 오히려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네다섯 살 때부터 공연을 하다 보니 제 포라의 배우는 저밖에 없었어요. 저도 학교에 가고 싶고 무대에서 내려오고 싶은 적도 많았죠. 하지만 서른이 넘어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서부터 제게 달란트가 주어진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어린이의 마음으로 살면서 어린이 뮤지컬 ‘피터팬’을 만들게 된 거죠.”

윤복희는 “피터팬”을 하면서 만난 3~7세 어린이 관객들을 통해 기쁘로 어린 때 느끼지 못했던 성장기를 배웠다.”면서 환하게 웃었다. 이후 그녀는 한국 뮤지컬의 효시인 ‘빠담빠담’을 비롯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의 주연을 맡으며 국내 뮤지컬 배우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제가 똑같은 것을 두 번 하지 못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때문에 가수들이 매년 같은 노래를 부르면서 흡족해 하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해요. 뮤지컬은 관객들이 달라질 때마다 무대에서 노래나 대사 표현도



60년만에 첫 콘서트 윤복희 권사

달라지는 매력이 있죠. 이제는 40대가 된 ‘피터팬’의 팬들이 이번 60주년공연에 찾아와주겠죠.”

그동안 80여 편의 뮤지컬에 출연했던 그녀는 30일 대전을 시작으로 청주, 부산, 대구, 서울 등 전국을 돌며 공연하는 60주년 스페셜 콘서트에서 출연작의 일부를 압축해서 드라마와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

최정원, 남경주, 허준호 등 앙상블을 자처하는 뮤지컬 후배들의 전화가 벌써부터 빗발치고 있다. 1979년 서울국제가요제대상을 받았던 히트곡 ‘여러분’을 통해 대중의 지친 감성을 위로했던 윤복희 권사. 그녀는 지금이 바로 자신의 전성기라고 단언한다.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30년 넘게 불렀는데, 노래의 발성과 호흡을 제가 만들어 놓고도 한 10년 됐을 때 노래의 맛이 느껴지더군요. 최근 들어서 노래가 또 다르게 느껴지면서 조금씩 음악의 맛을 알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을 알게 된 지금이 바로 제 전성기가 아닐까요?”

이은주 기자 erin@seoul.co.kr

北 여군장교, 간부들에게 성 상담해야 편해 ‘충격’

여장교 생활수첩에는 간부들에게 성 상담을 위하여 예쁜 여군들의 명단이 적혀 있어 충격이다.

5월8일 자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에 의하면 북한 여군들이 성 상담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절한 상황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보도이다. 대북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은 북한 군 장교 생활 4년차인 한 여장교의 말을 인용해 간부들에게 성 상담을 해야 군 생활을 편히 할 수 있는 현실을 털어 놓았다.

이 여장교는 “군에 입대해 간부들의 성적 욕구를 들어줬기 때문에 장교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장교가 된 후에는 군인 업무보다 간부들의 성 매매 알선자 노릇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처지를 밝히고 있다. 게다가 “장교가 된 이유는 똑똑해서가 아닌 간부의 요구를 들어준 탓”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다는 통신원에게 예쁜 여성군인들의 명단을 순서대로 적어둔 자신의 생활수첩까지 보여주며 증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첩에는 ‘아무게 여군은 모 간부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항까지 적혀있었다고 통신원은 전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신학생 모집



지망생에게 드리는 글

현대는 새로운 세기와 급격한 변화의 세계화라는 물결 속에 접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굳게 지켜왔던 전통적 가치들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대변혁의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웨스턴교회 직영신학교로서 ▲ 개혁신앙에 입각한 학문의 정통성을 학업하여 시대적인 변화에 대처하고 ▲ 영적 훈련의 시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성경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통찰력을 소유하게 하며 ▲ 세상의 참된 자유와 소망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미래 지향적인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에 맞추어 6대주에 활용할 수 있는 선교사역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국내외의 저명한 신학자들을 교수로 초빙하여 심도 있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편리한 교통과 각종 장학제도는 모두에게 드리는 혜택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곳을 통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며 함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본교를 향한 여러분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사명감이 충만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학장정기환 목사(D.D., Th.D.)
학장직약력 ●웨스트민스터신학교 학장 ●사도복음인 기독교출판회 이사장 ●세계민족인 신교회 회장
●글로벌 평생 교육원 원장 ●국제(목회)교도협회 총재 ●전원종교교회 담임목사 ●저서 성경개론 외 다수

설립 목적

본교는 신구약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보수적 개혁주의 신앙의 정통성에 입각한 초교파 신학교로써,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세계선교와 목회사역 및 지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할 참신한 일꾼을 양성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출 서류

①입학원서(본교양식)1통 ②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여권사진 3매 ⑤편입생은 성적증명서 1통 추가

전형 안내

· 전형기간 : 12월 ~ 2월(봄학기), 6월~8월(가을학기)
· 전형방법 : 서류전형 / 신앙면접

특 전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남,여 목사인수를 받습니다. · 본원 소속교단으로부터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전도사, 선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계대학 및 신학원에 편입하여 해당 학위를 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 집 학 과

과 정	학 과	기 간	자 격	비 고
학 부	신학과	8 학기	고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목회자 및 연구과정
	신교학과			선교사 준비
	상담학과			각계에서의 상담활동
	기독교무용학과	6 학기	중졸 및 동등이상 학력의 세례교인	댄스위십 선교 및 다양한 활동
별도 상담에 의하여 과정 및 학기를 결정함				
대학원부	상기의 전학과	M.Div.6학기 기타 4학기	학부 과정을 필한 자	목사인수 및 지속적 학문연구
학 술 원	해당학과	4~6학기	면접 및 심사 후 해당 학위 가능한 자	권위 있는 해외 신학교와 연계하여 과정을 이수함.
편 입 생	각 학과	1~3년	타 신학교 중퇴 또는 이수자 혹은 통신과정 후 편입가능	편목과정은 별도로 있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막1:17)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6:8)

이번학기 교수진

정기환 교수(조직신학) : (D.R.E.,ThD)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美)Trinity Theological Seminary
김용진 교수 : (Ph.D)(美)Pacific International University
장광웅 교수(고대근동학) : (Ph.D)(加)University of Sydney (英)University of London
임희환 교수(교회학) : (Ph.D)(美)School of Bible Seminary
정창수 교수(원리) : (D.D)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정철성 교수(구약신학) : (Th.D)(獨)Ruhr-Universität Bochum
권영철 교수(변증학) : (Th.D. Cand.) 서울大學校大學院 Torch Trin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박광보 교수 : (D.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마호인 교수(교회학) : (D.Min)(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종철 교수(목회신학) : (Th.D.Cand.)長老神學大學校大學院
박종혜 교수(가정상담학) : (D.C.C)(加)Canada Christian College
안병삼 교수(교회학) : (Th.D)(加)Canada Christian College
박상국 교수(교회음악) : (D.S.M. Cand)(伊)Lucio Campiani 國立音樂院
Charles H. McVty 객원교수(성경신학) : (D.Lit)(蘇)St. Petersburg State University
Andrew Joo 객원교수(실천신학) : (D.Min)(加)Christian College
Rondo Thomas 객원교수(조직신학) : (D-COC)(加) Canada Christian College



정통신학의 요람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신학교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617-4
※ 부개역 2번출구 송내역 방향 200m 지점 대평프라자 5층
※ 주차장은 건물 뒤편으로 오시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 오실 수 있습니다.

● 대표전화 : 032)323-5552, FAX : 032)322-0099
● H·P : 010-2956-9191 야간 : 032)321-9109
● E-mail : Keyone209@hanmail.net

대기협 제3대 회장 이진호 목사 선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대한기독사진가협회가 하나 되게



대기협 3대 회장 이진호 목사

대한기독사진가협회는 5월 16일(월)오후 7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소재 대광교회(임영수 목사)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회장 이상중 목사(새움진교회)인도로 신철이 목사가 기도를 하고, 로마서 14장 17~18절을 주제로 이 상중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사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체험하고 증거 할 수 있다”고 했다. 요리문답에서 “사람의 근본 된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라”고 했다. 또한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식이 최고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최고라고 했다. 그러므로 사진매체를 통해 모든 우리가 화목하고 평강과 희락이 있고, 모이면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는 모임이 되길 소망했다. 본 협회 고문 엄영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어 이상중 목사 사회로 회무처리가 시작되어 대한기독사진가협회(이하-대기협)발전을 위하여 회기에애한 토론을 갖고, 임원선거에서 제3대 회장에 이진호 목

사, 부회장 정기남 목사(지저스타임즈 대표), 김종욱 목사를 선출하고, 김갑식 목사, 박명규 집사, 윤형숙 집사는 유임됐다. 감사 신철이 목사, 오준규 집사를 선출하고, 운영위원과 임원의 조직은 회장단에 위임하고 공직사항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회장 이진호 목사는 맡겨주신 일에 부족하지만 협회의 발전과 원활한 협회운영을 위하여 미흡한 것이 있다면 임기동안 체계를 잡아가는데 힘쓸 것이며, 협회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중앙노회 손성규 목사「늘사랑의집」개원

장애우를 위한 생활시설에 벌써 6명의 장애우가 입소하고 있다.

예장(웨신)중앙노회 손성규 목사(노회 회계)는 5월 14일(토) 오전 11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소재 늘사랑의집을 새롭게 단장하여 개원감사에배를 드렸다.

손성규 목사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손백두 목사가 기도를, 노회장 정기남 목사는 디모데후서 3:1~12절 말씀을 인용 “영적인 삶으로 변화야 산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중경노회장 김용진 목사는 축사를 전하고, 늘사랑의집 손영경 원장의 인사말씀이 있었으며, 중경노회장 김용진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윌리엄케리의 글을 내걸고 있는 늘사랑의집 손성규 목사는 늘사랑의집을 개원할 수 있어서 감사하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사랑의집 개원 예배위원들과 함께

을 돌리고 있다. 늘사랑의집은 장애우를 위한 장애자생활시설이다. 현재 6명의 장애우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이날 예장(웨신) 중앙노회 회원들과 아버지학교 형제들, 새마을교통봉사대, 청암대 학우들, 지역장애인협회관계자들과 가족들이 참석하여 늘사랑의집 개원예배에 이어 격려하며 축사를 했으며, 장애우들을 위해 후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한편 중앙노회(노회장 정기남 목사/지저스티임즈, CJTN

방송 대표이사)는 식사를 마친 후 5월 월례회를 갖고 6월 총회 연합대회를 위하여 다함께 참석할 것을 결의하고 합심기로 마쳤다.

자세한 것은 다음 카페(늘사랑그룹)한글 접속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44-8
전화/070-4417-0191 HP 010-8245-0191 Fax 041-511-877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844-8

예장개혁신교총회 총회장 이,취임 예배드려



신임총회장 이봉룡 목사

교단 화합과 발전을 위하여 총회신하 미자립교회를 돌아보며 힘쓰겠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신교)총회는 11일(수) 오전11시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관 소강단에서 직전 총회장 김윤기 목사 이임과 총회장 이봉룡 목사의 취임식 감사에 배를 드렸다

개혁선교총회 총무 박남수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예배에 중앙노회 노회장 박석진 목사가 기도를 하고, 연합노회 노회장 김영연 목사가 신 10:12~13절을 봉독했다. 한기총 명예회장 최성규 목사

(인전순복음교회)는 “행복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직전 총회장 김윤기 목사는 지난 12년간의 장기집권을 해왔고 “총회발전을 위해 힘쓰던 중 칼이 목에 와 닿는 일도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총회를 사랑하기에 총회 발전을 위하여 힘써 일할 이 총회장에게 무거운 짐을 넘기면서 오바마가 작전지휘를 하는 군 장성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자신은 구석진 자리에 응크리고 있는 것처럼” 김 목사 자신도 구석진 자리로 물러난다고 이임사를 전했다.

이어서 이 총회장은 이임하는 직전 총회장 김윤기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취임사를 했다. 아울러 신임총회장 이봉룡 목사에게 취임축하패가 전달됐다. 또한 한빛울동 선교단의 특별찬양에 이어 중경총회장 박영남 목사, 부총회장 강봉규 목사에게 공로패를, 지저스타임즈교회 대표회장 주복자 목사가 축사를, 중경총회장 박영남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총회장 이봉룡 목사(마포영생교회 시무)는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직전 총회장의 훌륭한 리더십과 노고에 높이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제 그 바통을 이어받아 애쓰고 힘써서 일구어 놓으신 개혁선교총회를 위하여 힘쓸 것을 밝혔다.

또한 부족한 여중이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드리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개혁선교총회의 총회장에 취임했다면서, 총회 임원진, 산하 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모든 백성들을 행복하게”하는 주의 종이 되기 위하여 아낌없이 매진해 나아갈 것을 다짐했다.

또한 이 총회장은 총회를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듯이 그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총회를 섬기며 총회 신하 어렵고 힘든 미자립교회를 돌아보며 힘쓰겠다며 취임인사를 했다.

(복음선교)중부노회 제21회기 정기노회 열어



대한예수교장로회(복음선교)총회 중부노회 제21회기 정기 성노회를 갖고 노회장과 부노회장은 유임하고 신임원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했다.

지난 4월 26일(화) 오전 11시 기독교신학연구원(학장 정은섭 목사)에서 정기노회에서 서기 서정일 목사 인도로 1부 예배가 진행되어 박동석 목사가 기도를, 강경자 목사가 성경을 봉독하고, 노회

장 박순종 목사는 “부활을 믿는 중부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노회장 축도로 마쳤다.

이어 부노회장 정은섭 목사 집례로 2부 성찬예식이 시작되어 박옥화 목사가 분병위원을, 장은혜 목사가 분진을 위원을 맡았으며, 집례자의 축도로 성찬예식을 마쳤다. 3부 회무처리에 들어가 노회장 박순종 목사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임원선거에서 현 노회

장과 부노회장을 유임케 했으며, 그 외 임원선출은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신 안건토의를 거쳐 노회장 박순종 목사의 설교와 축도로 마쳤다.

중부노회 신임원 다음과 같다. 노회장 박순종 목사, 부노회장 정은섭 목사, 서기 서정일 목사, 부장백향 목사, 회의록서기 박동석 목사, 회계 강정자 목사, 부박옥화 목사



선교총회 이취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

당진 명품 땅 양로원 전원주택

떠오르는 당진! 축복의 땅 당진! 살기 좋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꿈과 낭만, 희망의 도시, 당진에 투자가치가 보장되는 명품 땅 양로원 전원주택지에 VIP 당진을 초대합니다.

인구 증가로 곧 당진이 시로 승격이 되며, 미래가 밝은 당진! 청정지역인 당진에 양로원 전원주택의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땅 26,400근(8000평 계획관리지역)을 평당 250,000원에 지주가 법무사 관리 하에 매매합니다.

교통편 : 서울, 인천, 부천, 안양, 분당에서 약 1시간 대. 인근에 관공단지 110만평 골포장 호텔 등 개발계획 현재보다 더 빨리 서울로 가는 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시개발 상황도

연락처 : 010-3733-9862 전현풍 장



대한기독사진가협회 2011 정기총회

christianphoto



대기협 3대 회장 이진호 목사



고문 엄영수 목사

본 협회는

첫째로, 대한민국과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있는 사진을 사랑하고 사진에 관심이 있는 크리스천들이 직분이나 사진실력의 차별을 두지 않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협회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 협회는 다양한 정보교환, 촬영보급, 세미나, 온라인오프라인강좌, 공모전, 전시회 등을 통해서 회원들의 사진실력향상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사진이 예배와 복음 선교에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록, 필요한 이미지들을 촬영 제작하여 다양한 장르의 이미지들을 보유함으로 한국 교회가 필요로 할 때 원활하게 공급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넷째로, 협회는 실력있는 사진가들을 양성해서 교회의 각종 행사시나 성도들의 가정애경사 또는 각종 기독교단체의 행사에 사진촬영이 필요할 때 적극 지원하여 수준 높은 이미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섯째, 협회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천포토아카데미를 통해서 전문 사진가를 양성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입니다.



대한기독사진가협회 / 대한기독영상선교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1동 1410-9

☎ 031-384-7408
www.christianphoto.co.kr